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후보자 선택
행동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관리전공

김 성 철

2009.08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3
제 3 절 연구범위와 구성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라이프스타일	5
1.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5
2. 라이프스타일의 유형분석	9
3. 라이프스타일의 측정방법	17
제 2 절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23
1. 이념성향에 관한 고찰	23
2.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라이프스타일	24
제 3 절 후보자 선택행동	27
1. 유권자의 투표행동이론과 분석모델	27
2. 유권자의 정보원천	36
3.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요인	38
제 3 장 연구모형 및 설계	49
제 1 절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49

제 2 절 조사 설계	54
제 3 절 변수의 설정과 조작적 정의	56
제 4 장 실증분석	59
제 1 절 표본의 구성	59
제 2 절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	60
제 3 절 가설검증 결과	63
제 4 절 분석결과의 요약	83
제 5 장 결론	87
제 1 절 요약과 시사점	87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미래연구방향	90
참고문헌	91
설문지	95
감사의 글	100

<표 목차>

<표 2-1>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연구	6
<표 2-2> 라이프스타일의 본질	8
<표 2-3> 라이프스타일 선행연구	10
<표 2-4> 국내 라이프스타일 연구	11
<표 2-5>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13
<표 2-6> 한국인의 가치 요인들	14
<표 2-7>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16
<표 2-8> 라이프스타일의 본질	18
<표 2-9> 라이프스타일의 범위	19
<표 2-10>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소비자 유형(VALS 1)	21
<표 2-11>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소비자 유형(VALS 2)	22
<표 4-1> 자료의 구성	59
<표 4-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1
<표 4-3> 군집분석 결과	64
<표 4-4> 연령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65
<표 4-5> 성별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66
<표 4-6> 소득수준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66
<표 4-7> 학력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68
<표 4-8> 출생지와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69
<표 4-9> 결혼여부와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70
<표 4-10>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정보원천(친구·이웃)	71
<표 4-11>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정보원천(가족)	71
<표 4-12>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정보원천(인쇄매체: 신문, 잡지) ..	72
<표 4-13>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정보원천(방송매체:TV,라디오) ..	72
<표 4-14>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정보원천(인터넷)	73
<표 4-15>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정보원천(정당홍보물)	73

<표 4-16> 도지사후보의 소속정당	74
<표 4-17> 도지사후보의 학력	75
<표 4-18> 도지사후보의 정치경력	75
<표 4-19> 도지사후보의 나와 같은 지역 출신	76
<표 4-20> 도지사후보의 공약	76
<표 4-21> 도지사후보의 도덕성	77
<표 4-22> 도지사후보의 혈연	77
<표 4-23> 도지사의 인물(업무수행능력)	78
<표 4-24> 도지사후보의 인지도	78
<표 4-25> 도의원후보의 소속정당	79
<표 4-26> 도의원후보의 학력	79
<표 4-27> 도의원후보의 정치경력	80
<표 4-28> 도의원후보의 나와 같은 지역 출신	80
<표 4-29> 도의원후보의 공약	81
<표 4-30> 도의원후보의 도덕성	81
<표 4-31> 도의원후보의 혈연	82
<표 4-32> 도의원후보의 인물(업무수행능력)	82
<표 4-33> 도의원후보의 인지도	82
<표 4-3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표	84
<표 4-35> 정보원천별 신뢰정도	84
<표 4-36> 도지사후보의 선택요인평가	85
<표 4-37> 도의원후보의 선택요인평가	86

<그림 목차>

<그림 2-1> 유권자 투표행동 분석모델	31
<그림 2-2> Sheth와 Newman의 모델	32
<그림 2-3> Lindon의 모델	32
<그림 2-4> Campbell의 모델	33
<그림 2-5> Page와 Jones의 모델	34
<그림 2-6> Shama의 유권자 의사결정 모델	35
<그림 2-7> 투표의사 결정과정	35
<그림 3-1> 연구 모형	49



ABSTRACT

A Study on the Behavior of Selecting Candidates in Relation to the Lifestyle of Voters

- Focusing on Jeju Province -

Sung-Cheol Kim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One thing we all have in common in today's world is that we have the right to vote. Regardless of our occupation, income, education, gender and religion, we, as voters, have the right to select candidates through election. Election is a behavior of determining a specific person as a representative among multiple candidates through a certain procedure.

The purposes of studying social phenomena vary greatly. One of them is to understand and explain a wide range of social phenomena through a new theory and knowledge stemming from the results of a study, and to eventually control and monitor the phenomena. Thus, it is greatly meaningful that, through the study on voting behavior, we build a theory of voters' candidate selection and propose policy-making directions by analyzing what factors contributed to the voters' candidate selection, how much those factors influenced election results, and what factors influenced voters the most.

Accordingly, we can say that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we look deeply into the behavior of selecting candidates in relation to the lifestyle

of voters in the Jeju area through the course of this research, despite the fact that Jeju has the inherent limitations of being geographically remote from the mainland.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어느 누구나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유권자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업이 무엇인지, 소득수준이 어떠한지,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성별과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한 기준 나이가 되면 모두가 유권자로서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선거인이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선거에 의해 통치의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민의 이익이 표출되고 집약되므로 선거제도는 대의 민주주의 운용의 원리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자유, 평등, 공정, 참여 등의 이상과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대표들을 교체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나아가 국민의 의지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또는 선거의 결과를 국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결정으로써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때 정치체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과 정치집단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으로 개인의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은 어떻게 하면 개인이 원하는 결과의 최대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Frisch(1994)은 개인이 원하는 결과의 최대값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정형화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상황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상황은 변화가능성이 높으며, 더욱이 개인이 지닌 인지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의사결정과정은 합리적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한건한, 장휘숙, 안권준, 2005).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행위 또한 정형화된 규칙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답은 존재치 않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자를 옳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자 중

에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고르게 된다(황상민·김도환, 2003). 그렇다면 과연 개인은 어떤 후보자를 선호하고 비 선호하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후보자를 선택할 경우 어떤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개인이 어떤 대안을 더 선호하는 현상을 로키치(Rokeach, 1973)는 가치로써 설명한다. 그는 가치가 어떤 행동에 대한 하나의 기준으로써 작용하고, 갈등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일반계획이며, 인간 행동을 장기적으로 안내하는 동기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다(남승규, 1995). 가치가 인간의 사유와 삶, 행동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철학을 비롯한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에서 연구가 되어 왔다. 사람이 지닌 가치가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 기준 또는 목표로써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개념적 요소로서 고려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투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은 정당소속감, 정책, 그리고 후보자 이미지의 세가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Miller, et al., 1984; Lewis-Beck & Rice, 1992). 전통적으로 정당일체감 또는 정당선호도는 투표의사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안정적인 예측변인으로 이용되었지만,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제 그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데 동의한다(Norman H. Nie, Sidney Verba & John R. Petrocik, 1997; 정성호, 2006). 한국의 경우 정당간의 빈번한 이합집산과 정당의 잦은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유권자가 각 정당이나 정파에 대해 내면화된 당파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박찬욱, 1993; 김현우, 1993)과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정강·정책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점(안문석, 김지희, 황민섭, 2003)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슈나 이미지 모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용되는 유용한 정보이며 후보자를 판단할 때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나 선택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는 마케팅과 광고학 및 소비자 심리 분야에서 연구(남승규, 1995)가 되었지만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구분하여 후보자 선택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 논의가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후보자 선택

행동에 관한 연구는 향후 선거의 향배와 사회변화를 예측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후보자 선택행동에 대해 먼저,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 성별, 소득수준, 학력, 출생지, 결혼 여부 등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유의성을 구분하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보원천 즉, 친구·이웃, 가족,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정당홍보물 등에 대한 신뢰정도에 대해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요인들 즉, 소속정당, 학력, 정치 경력, 나와 같은 지역출신, 공약, 도덕성, 혈연, 인물(업무의 수행능력), 인지도 등 이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어떻게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후보자선택행동에 대해 선행 연구와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를 위해서는 관련서적, 논문, 기타 각종 간행물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관련이론을 파악하여 체계화 하였고 실증연구를 위해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구분하고 선거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보원천 신뢰정도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유의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선거(도지사·도의원)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행동 되어 지는지를 연구 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제주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편의추출방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의 범위는 2009년도 4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문제의 제기과 연구목적, 연구 범위와 구성, 연구방법을 기술 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라이프스타일 개념, 라이프스타일 유형분석, 측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으로는 이념성향에 대한 고찰,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라이프스타일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후보자선택 행동으로 유권자의 투표행동이론과 분석모델, 유권자의 정보원천, 유권자의 후보자에 관한 선택요인을 기술하였다.

제3장은 연구모형 및 설계로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조사 설계를 그리고 변수의 설정과 조작적 정의를 기술하였다.

제4장은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로서 표본의 구성과 자료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와 가설검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요약을 기술하였다

제5장으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본 논문의 요약과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와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라이프스타일

1.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개념은 16세기 시인, 자연주의자, 철학자들의 여러 작품 활동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후 독일의 사회학자 Marx Weber에 의해 처음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개인, 그룹, 계층의 차이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Ansbacher, 1967).

1963년 미국 마케팅학회(A.M.A.)에서 ‘라이프스타일의 영향과 시장행동’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심포지엄에서 Lazer(1963)는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전체 사회에서 뚜렷이 차별되는 특징적인 것(mode of living)이라고 정의하면서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과 특징, 소비패턴은 사회 또는 특정 부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다고 보았다(최강욱, 2004).

Lavy(1963)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은 많은 생활자원의 결합 또는 개인의 활동이 암시하는 하위상징의 복합 재라고 정의하였으며 마케터는 상징으로 상품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학자인 Duncan(1996)은 라이프스타일이 단순한 기호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생활에서의 하나의 통합원리이기도 하며, 라이프스타일이라 함은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이 공유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객관적 의미를 갖는 표현이나 양식이라고 함으로써 집단의 개념을 포함시켜 라이프스타일을 그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동조해야 할 규범인 동시에 그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윤여산, 2004).

이와 같이 사회학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개념은 주로 특정집단 및 계층이 공유한다는 생활양식 또는 생활태도로 집단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런 사회학

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여 처음으로 ‘style of life’라는 말로 사용하였던 심리학자 A.Adler(1969)에 의하면 라이프스타일은 “반응을 보이는 존재로서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정적 목표, 목표지향성, 통일성, 일관성, 독자성이라고 하는 유기적 관념과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윤여산, 2004).

1970-80년대에 들어와서는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통합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Bernay(1971), Plummer(1972), Reynolds & Darden(1977), Douglas & Urban(1977), Gross(1980), Assae(1981), Engel와 Blackwell, Kollat(1982)등의 정의에서는 라이프스타일 개념을 태도·가치의식, 의견, 흥미, 관심 및 실제적 행동과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여겼으며 다음<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 라이프스타일의 개념 연구

유형	개념 정의
Bernay(1971)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것을 반영하는 독특한 개인의 생활방식이며, 심리적·경제적·문화적·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의 표현
Plummer(1972)	생활양식 유형과 소비자 행동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생활측정양식을 개발
Reynolds & Darden(1977)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활동) 환경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관심), 그들의 자신과 그들의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견) 등의 생활방식
Douglas & Urban(1977)	라이프스타일을 그들의 일상생활패턴, 일하는 습관, 여가활동과 흥미, 자아인식, 포부와 좌절, 그들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주변 환경에 관한 신념이나 의견

Gross(1980)	라이프스타일은 생을 영위하는 기본정신과 인간내면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치가 생활로 나타난 결과이며 결혼생활의 형성과 유지로 나타나는 것
Assae(1981)	사람이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가(활동), 그들의 중요한 흥미는 무엇인가(관심), 그들의 의견은 무엇인가(의견)
Engel & Blackwell, Kollat(1982)	인간생활이나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이라고 하면 그것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적특성이며, 개인의 문화, 사회계층, 준거집단, 가족 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과생물

자료: 최혜경(1994).“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행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상과 같이 라이프스타일 개념은 개인으로부터 사회전체에 걸쳐 언급될 수 있다. 즉, 분석의 목적과 관심의 차이에 따라서 개인, 가족, 혹은 세대, 집단, 계층, 지역, 사회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라이프스타일을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태도, 가치의식, 의견, 흥미 및 실제적 행동과 상호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윤여산, 2004).

이처럼 라이프스타일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에 따라 다른 개념을 내포하며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통합기능이라는 공통된 시각도 있으며, 독자성, 창조성, 가치관, 목표지향성을 내포하며, 각각의 기호와 신호, 그것에 상응하는 선택을 통한 능동적, 주체적인 생활을 형성하려는 인간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떤 문화나 집단과 식별 할 수 있는 생활상이 구성요소나 특징과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구매의 양식은 바로 어떤 사회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통합할 때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각 사회계층의 라이프스타일, 생활주기 단계상의 각 특정집단의 라이프스타일 등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은 태도, 가치의식, 견해, 흥미와 실제적 행동과 상호 통합된 하나의 체계이자 인간행동 전반에 나타나는 상징적이고 차별적인 행동양식으로 환경적 및 개인적 용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파생물로 정의할 수 있다(강애양, 2005).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는가(활동), 환경 속에서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가(관심),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의견) 등의 세 가지 요소로 식별할 수 있는 생활양식(mode of living)으로 정의 할 수 있다(송용섭, 1992).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은 라이프스타일 분석이 전체적인 사회의 생활양식을 밝혀 준다는 것이며, 유용성은 시장을 세분화하는 데 있다. 라이프스타일에는 연령, 소득, 직업 등과 같이 고정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연구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각기 달리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는 구별된다(이진희, 2003).

<표 2-2> 라이프스타일의 본질

구 분	내 용
생활 구조	● 생활의식, 행동, 가치관, 태도 등의 복합체
구매 및 소유	● 사용패턴, 가계지출배분, 시간배분패턴, 생활공간의 이용패턴
표 현	●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고 다차원적인 질과 양의 표현
계 층	● 특정개인으로부터 사회전체, 여러 계층
군 집	● 유사한 것과 상이한 것으로 분류
시 스템	●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 환경변화 최소적응으로 종래의 패턴을 유지
가 치	● 주체적 가치, 객관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 생활표현 양식

자료: 조충현(2001). “스포츠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시설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라이프스타일 유형분석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개인행동의 예측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마케팅 분야와 소비자학 및 광고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하며 최근 들어 심리학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치와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소비행위 연구로서 1970년대 들어 Rokeach(1973)의 RVS(Rokeach Value Survey)로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소비행위를 단순히 구매행위와 구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인지적 측면보다는 정서적이며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였다. 라이프스타일과 가치에 관한 국내 연구는 1980년에 들어 시작되었다(김홍규, 1999). 김동기(1977)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써 라이프스타일 마케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김정미 · 임정빈(1987)은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소비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연구하였다. 이후 여가 및 레저활동유형(신현주 · 박시범, 1993; 이상일 · 하수영 · 홍승후, 2003; 김성혁 · 황수영 · 김용일, 2006), 관광 행태 및 관광지 선택(신현호, 1999; 김성혁 · 이정규, 2000; 이진희, 2005; 황수영 · 김성혁, 2006), 마케팅(조윤기, 2006)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정된 연구들과 인구학적 속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개인행동 즉 개인의 선호와 상품 선택 및 대상에 대해 형성되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음이 여러 분야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을 소비자의 지위로만 국한시키고 있다. 개인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지위를 갖고 있으며 유권자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동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라이프스타일 선행연구

연구자	라이프스타일 연구동향
Weiss & Tigert (1971)	● 300개의 AIO문항을 작성한 후 6점 척도로 동의와 반대의 정도를 질문하여 응답결과를 요인분석을 통해 22개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추출하였다.
Well(1975)	● 라이프스타일 유형 및 특성연구에서 소비자 집단의 유형에 관한 실증조사를 통해 8개의 라이프스타일(조용한 가정 형, 윤리적인 지식인 자처 형, 위락지향 형, 성취주의자, 전통주의자, 불만 형, 세련 형, 활동적 남성 형)로 분류
Venkatesh (1980)	●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해 연구하면서 Arnott의 여권주의 척도에 따라 여권주의자, 온건주의자, 전통주의자로 분류
Hawes(1988)	● 50세 이상 여성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여행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특성프로파일을 도출, 5단계로 선정된 여성노인집단이 라이프스타일 패턴과 여행관련 선호도의 변화에 초점
Bernard(1988)	● 젊은 성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레저활동의 위치를 연구, 레저활동의 태도, 빈도, 참여집단, 위치, 만족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6개 유형개발
Gladwell (1990)	● 인디애나 주립공원 숙박시설 이용자들을 사회 인구통계학적특성, 행동성향, 여행행동, 그리고 여행정보의 원천에 따른 중요한 차이점과 함께 동일시 할 수 있는 집단으로 제시
박시범(1992)	●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레저활동유형을 AIO분석법에 의해 8개의 소비자집단 유형과 8개의 레저활동유형을 도출하여 8개의 소비자집단들은 레저활동유형과 유의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힘
채서일(1992)	● 한국적 상황에 대한라이프스타일 연구가 미비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의생활, 식생활, 문화생활, 주생활, 매체이용, 쇼핑행태, 성격유형, 사회적 가치관의 8개 부문별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추출하여 4개의 군집으로 분류
신현호(1995)	● 관광시장에 대한세분화 접근방법으로 관광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관광시장 세분화의 활용가능성 파악과 각 세분시장에서의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연구
오수경 · 윤동구 (1995)	● 방한 일본인 관광객들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이를 세분화하는 기준으로 사이코그래픽 변수들에 관한 효용성을 연구
Silverberg et.al.	● 관광객들의 라이프스타일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사이코 그래픽조사가 자연중심관광시장의 세분화를 구별 짓는데 이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연구

안영면(1996)	●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을 5개의 특성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특성에 따른 관광마케팅에의 적용에 대한 유용성과 효용성 강조
육종술 · 고낙원 (1997)	● 상업스포츠 시설 이용자인 스포츠 소비자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종목과 참여하고자 하는 선호종목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
이에주(1998)	● 다양한 마케팅 조사기법을 사용하여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객의 의식 및 선호도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광정책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
김주훈(1999)	● 사회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규명
김성혁 · 이정규 (2000)	●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문화관광객의 시장세분화와 문화관광선택행동 분석 연구에서 6개의 라이프스타일 요인과 5개의 군집유형을 추출
이성희(2000)	● 노인층의 여행지 선택행동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전개하였는데 5개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여행지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연구
이진희(2005)	● 서귀포 향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한 후 세분시장에 적합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의 관광 상품을 제시

자료: 한상인(2006).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본 제주지역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5.

<표 2-4>은 지난 10여 년간 이루어진 연구들로 어떻게 라이프스타일이 유형화 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며, <표 2-5>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전국 5대 도시에 거주하는 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여 매체 및 제품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것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이 다양화되며 기존의 규범이나 규칙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점차 소비지향적인 사회로 발전하면서 소비행태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4> 국내 라이프스타일 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및 내용	라이프스타일 유형
채서일(1992)	서울 거주자(15-19세) 라이프스타일 분석	진보적 유행추구 형, 합리적 생활만족 형, 전통적 알뜰 형, 보수적 생활 무관심형

조형오(1994)	전국 5대도시 거주자 (13-59세)라이프스타일 분석	서구 지향적 자아추구 형, 현실 부정적 자아억제형, 미래지향적 갈등 형, 전통 지향적 현실순응 형, 감각 지향적 자유분방 형, 보수적 현실향유 형
박성연(1996)	전국 5대 도시 거주자(15-65세) 라이프스타일 분석	진보적 패션추구 형, 합리적 생활추구 형, 전통적 보수추구 형
이은경(1998)	도시주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지출구조 분석	안정적 가치중시 형, 적극적 생활유지 형, 활동적 성취동기 형, 충동적 소비지향 형, 개인사회관심형
이승신(1999)	도시주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성향 분석	합리주의 성향, 편의추구성향, 보수지향 성향, 물질추구성향
박종민 김화동(200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인터넷과 TV 이용패턴 분석	자기중심적 성공추구 형, 대중문화 소비추구 형, 자기관리추구 형, 자기희생 가족지향 형
신혜봉 이금룡 임숙자(2003)	노인 여성(55세 이상)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의복구매행동 분석	쇼핑지향 형, 혁신지향 형, 외모지향 형, 고급여가지향 형, 사교적 활동지향 형
홍성태 박은아(2005)	여성 소비자(19-50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구매형태 비교	의욕저하 형, 자기중심 형, 알뜰건실 형, 보수안정 형, 미시개성 형, 적극 활달 형

자료: 서기열(2007).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선호 휴대폰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표 2-5>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2005년 라이프스타일 유형		2006년 라이프스타일 유형	
1318세대	활동 지향형, 브랜드 추구형, 매체친화형, 학업 매몰형	심리적 라이프스타일	보수적 현실순응형, 감성적 틈에이지형, 진취적 트렌드 선호형, 이성적 보통가장형, 안정적 사회리더형, 실용적 가정중시형
1964세대	자기 만족형, 트렌드 추구형, 생활안정 지향형, 소박한 서민형, 성공 지향형, 신가정 증시형	세대별 라이프스타일	1318세대,1924세대, 2529세대,3039세대, 4049세대,5059세대, 6064세대

자료: 한국방송공사. <2005, 2006 MCR연례보고서>.

1) 한국인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잉글하트가 한국을 가장 큰 세대차를 보이는 사회라고 지적한 것과 같이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한국 사회의 맥락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생활태도 및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라이프스타일로 나타난다(한덕웅·이경성, 2003). 또한 한국사회라는 문화권 안의 집단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여 다른 특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즉 특정 문화권이나 특정 집단의 라이프스타일은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집단을 구별 할 수 있게 해준다(박성연·최신애, 2000).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알고자 한다면, 한국인의 가치와 가치체계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 적합한 한국인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도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라이프스타일 측정방법(황상민

· 양진영, 2003)은 기존에 번안된 라이프스타일 설문과는 달리 현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12개의 가치 요인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구분하였다.

<표 2-6> 한국인의 가치 요인들

가치 요인	특 징
가부장적 태도	● 남성의 주도적이고 권위적 역할과 그에 따라 순종을 강조
남아 선호	●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전통적이고 비합리적인 남아선호사상
사이버 보헤미안	● 현실세계나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익숙하고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며, 자유와 평등 및 적극성과 관련된 태도
개방성	● 다른 이념, 성, 문화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것들을 수용하고 표현 하는데 있어 호의적이고 개방적인 태도
부르주아	●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며, 돈을 자신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때 비로써 가치롭고, 성공하기 위해선 타고난 개인의 배경이나 연줄이 중요하다는 성향
여 피	● 본래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성공이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전통가치	● 기본질서이자 시대 변화에 무관한 원칙의 하나인 서열에 대해 존중하고 전통적 가르침에 대해 존중하는 성향
사회 의식	●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일 중심적 태도와 관련되어 사회 전반에 대한 의식이나 관심 수준
수직적-개인주의	● 우열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남들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경향
수직적-집합주의	● 자신의 속한 집단을 위해 의무와 희생을 순순히 감당하는 가족중심의 전통적 가치관
수평적-개인주의	●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
수평적-집합주의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성공 역시 주변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는 태도

자료: 윤지선(2008).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책선호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5.

황상민 · 양진영(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대집단의 가치를 기준으로 라이프스타일을 확인한 결과,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은 12개의 가치양상을 보인다(<표 2-6>).

12개의 가치요인에 의해 5가지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은 물질주의적 신봉건형,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현실적 추종형, 동질주의적 개방형, 전통주의적 보수 형으로 구분되었다(<표 2-7>). 물질주의적 신봉건형은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가족을 위해 성공하길 원하며 모든 연령에 대해서 고르게 존재하는 유형이다. 공공의 문제에는 무관심하며 집안, 학벌, 연줄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통가치를 존중하는 자신과 가족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개인주의적 보보스(보보스는 부유층이면서도 보헤미안적 예술 감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로서 미국 신경계의 활황이 낳은 새로운 계층이다. 부유하더라도 반물질주의적인 태도와 창의성, 높은 교육 수준이 없으면 보보스라고 할 수 없다.)형’은 모든 일의 중심이 자신이며 타인과의 경쟁에 익숙하여 성취 지향적이다. 성공을 중시하면서도 보헤미안(사회의 규범이나 관습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서 집시(gypsy) 성향이 강하다. 세상의 중심은 나를 주장하며 자신만의 전문성과 사회적 성공을 추구한다. 주로 20-30대에 많이 분포하며 고학력층, 화이트칼라와 학생들에게 많이 보이는 유형이다.

‘현실주의적 동조 형’은 뚜렷하게 높은 성향은 없고,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보헤미안 성향에 거부감이 있다. 눈치를 보며 대세를 따르며 튀지 않고 조화롭게 관행대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고 특히 40-50대에 더 많이 분포한다. 중졸이하의 저학력 층에서 많이 분포하고 자영업과 주부에 상대적으로 많다.

‘공동체적 개방형’은 사회의식이 높지만 개인의 물질적인 성공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개성은 강한 편이나 뜻만 통하면 나이나 성별, 지위를 초월하여 개방성을 발휘한다. 사회참여를 중시하며 정치적 관심이 높은 편이다.

‘전통주의적 보수 형’은 전통적 성향이 강하고 상당히 보수적이다.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시하고 정치사회적 관심이 높다. 남성 우월 주의적이고 집단과 조직을 위해 희생을 당연시한다. 40대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학력이 낮을수록 많이 분포한다.

<표 2-7>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특징
물질주의적 신봉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주의적이다; 자신을 포함한 가족을 위해 성공하길 원한다. ● 보수적이다; 서역할 고정 관념적이다. ● 수평 주의적이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타인과 협력 한다. ● 사회의식이 낮다; 사회나 정치문제에 관심 없다.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굉장히 물질주의적이다;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을 원하며 즐기고 성공하기 위한 것에 가치를 둔다. ● 개인주의적이다; 자신이 중심이 되며, 타인과 경쟁하고 이기고 싶어 한다. ● 보헤미안적이다; 자기개발과 표현에 익숙하다. ● 타인과 함께 하길 꺼린다.
현실주의적 동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렷하게 높은 성향이 없다. ● 개인주의를 싫어한다.; 자기중심적이고 타인과 경쟁하길 원하지 않는다. ● 물질적이지 않다; 재미나 경제적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 ● 권위나 서열에 의한 집합주의적인 것을 싫어한다.
공동체적 개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적이다; 다양성과 이질적인 것에 대해 호의적이다. ● 타인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길 좋아한다. ● 보수적인 것을 싫어한다.; 전통적인 가르침이나 고정관념적인 것을 싫어한다.
전통주의적 보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전통적성향이 강하다. ● 집합 주의적이다.; 가족이나 조직을 위한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고 타인과 공유나 협력하길 원한다. ● 사회의식이 높다; 사회적 변화에 관심이 많다. ● 물질주의적이다; 자기와 가족을 위해 경제적으로 풍요하길 원하며 즐기고 싶어 한다.

자료: 윤지선(2008).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책선호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7.

5가지로 유형화된 라이프스타일은 세대 혹은 세대차의 사회 현상을 연령으로 구분한 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가치들에 의해 구분된 라이프스타일로 이해하도록 하여 같은 세대 혹은 연령에서 서로 다른 의식과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른 세대 간 태도나 의식, 행동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여 현실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유연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황상민·양진영·강영주(2003)의 연구에서 한국사회에서 전통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표상되던 기성세대들(40-50대)이 신세대들(10-30대)에 비해 권위주의적 성향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연령과 권위주의적 성향 간의 아무런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히려 권위주의적 성향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그 중에서 전통주의적 보수형의 사람들이 가장 높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였고 동질주의적 개방형이 가장 낮았다. 대통령 후보자의 이미지 인식(황상민·김도환, 2003)에 있어서도 개인이 갖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이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만드는 후보자의 이미지에 반영되고 이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였다. 즉 동일한 후보에 대해서도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또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라이프스타일의 측정방법

1) 라이프스타일의 분석방법

지금까지 행하여진 라이프스타일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객관적 자료와 주관적 자료에 의한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마케팅 조사방법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던 방법은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사회계층, 심리적 특성을 이용한 분석방법이었고, 이 가운데 인구통계학적 분석방법은 인간을 소비행위의 주체로 보고, 이들이 갖는 특성, 다시 말하면 연령, 성, 소득, 교육수준, 직업, 가족규모, 배우자 유무 등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계층과 계량적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반면, 생활양식의 유형이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라이프스타일의 분석방법은 첫째, 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회전체 또는 특정사회에 있어서 생활양식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

하려는 거시적 분석방법과 둘째, 주관적인 자료를 측정 분석하여 사회적 경향의 파악이나 예측을 하려는 미시적 분석방법의 두 가지 분석방법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강애양, 2005).

<표 2-8> 라이프스타일의 본질

구 분	객관적 자료에 의한 분석방법	주관적 자료에 의한 분석방법
거시적 분석	- 사회지표 분석 - 생활의 질 자료 분석 -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분석	- 사회심리와 소비자 수요분석 - 사회적 경향의 모니터 분석 - 사회동향 예측분석
미시적 분석	-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세분화 분석 - 생활 재 보유 및 사용패턴 분석	- 사이코 그래픽 분석 - AIO 분석 - 생활시스템 기법 - 퍼듀대학 소비자 조사기획

자료: 박시범(199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레저 활동유형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지금까지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측정방법으로는 행동적 스타일 분석법(behavioral life style approach), 사회경향 분석법(social trend approach), AIO법, 생활스타일링 분석법(life styling approach) 심리도식(psychographic approach) 등이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려면 적절한 라이프스타일 변수를 설정하고 질문법으로 조사하거나 심리측정들을 사용하여 자료를 얻어서 요인분석이나 군집분석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추출하고 전형적인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정립해야한다(Engel & Blackwell, 1982).

(1) AIO 분석방법

AIO법은 소비자의 인간적인 측면이나 라이프스타일을 일상의 행동(Activities), 주변의 사물에 대한 관심(Interests) 및 사회적·개인적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Opinions)이라는 세 가지의 차원에서 분석·파악하려는 방법으로 AIO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자가 어떻게 시간을 소비하는가(활동), 소비자가 각종의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관심)?”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라

이프스타일 분석에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AIO항목과 함께 사용할 경우의 라이프스타일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는 다음 <표 2-8>과 같다(박도형, 2005).

<표 2-9> 라이프스타일의 범위

활동(A)	관심(I)	의견(O)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	가족	자기 자신	나이
취미	가정	사회심리	학력
사회적 사건	직업	정치	수입
휴가	지역사회	사업	직업
연회	오락	경제	가족구성
클럽회원	유행	교육	주거
지역사회활동	음식	제품	지리
구매	매체	미래	도시규모
운동	성취	문화	생활주기단계

자료: Joseph.T. Plummer(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Vol. 38, January: 34;재인용, 박도형(2005). '스포츠 관광 상품 이용자 라이프스타일과 구매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38.

AIO분석은 사람들이 그들이 활동, 관심 및 의견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활동은 작업시간과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를 측정하며, 관심은 주변의 사물에 대한 관심도로 측정하고, 의견은 사회적 문제, 제도 및 그들 자신에 대한 자세의 관점으로 측정하고, 연령 · 수입 · 주거지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다.

AIO측정법은 응답자들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범위를 선택하도록 단계적으로 고안되며,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매체접촉 패턴, 제품 및 상표의 사용여부 등의 자료를 얻기 위한 문제도 포함이 된다.

AIO분석에는 라이프스타일과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반적 AIO항목과 특수 AIO항목과 같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특수 AIO는 제품이나 상표의 실제적 선택의 예측에 사용하며, 일반적 AIO는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사용된다.

(2) 사회경향 분석방법과 생활스타일 분석법

사회경향 분석법은 사회 전체의 특징적인 라이프스타일의 경향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회 전체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사회경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각 경향 내지 추세는 규모, 경향의 특성, 경향의 성장률 등의 측면과 관계하여 분석된다.

생활스타일 분석법은 분석자의 가치관에 의해서 라이프스타일 형태를 분류하고 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하게 되는 태도 내지 활동의 여러 가지 형태를 라이프스타일 역할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이를 전제로 신제품의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분석방법이다.

(3) 심리도식 분석법

이 분석법은 라이프스타일의 측정을 위해 폭넓게 응용된 기술로서 특성 이론과 관련이 있으나, 특성 이론은 제한된 수의 보편적 특성에 근거하여 표준화된 검사로 측정하는 반면에, 이는 비 표준화된 조사에서 도출하는 관심, 활동과 의견이 무한한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자의 심리학적 측면 및 인구통계학적 측면과 다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계획된 질적 연구이다.

2) 가치와 라이프스타일(VALS)

VALS(Value and Life Style)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의 머리글자를 딴 약어로서 다른 산업들에서 매우 널리 알려져 있으며 관광산업과도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하나의 세분화 계획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이다(Shih, 1986민성기, 2001). 이는 인구통계학적인 자료나 소비통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인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많은 상업적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연구결과를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VALS의 종류에는 VALS1, 1998년에 수정되어 나온 VALS2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인터넷 사용자를 분류하는 iVALS, 일본인의 생활을 분류하는 jVALS 등이 있다. VALS는 SRI International에 의해 1978년에 개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원리는 VALS유형학으로 소비자들의 자아이미지, 열망, 가치와 신념, 그들이 이용하는 제품에 근거를 두고 미국인들을 문화

적 가치와 “욕구추구 소비자집단(need-driven), 외부지향 소비자집단(out-directed), 내부지향 소비자집단(inner-directed), 통합적 소비자집단(Combined outer-inner directed)”의 4개의 집단과 9개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인 생존자형, 부양자형, 소속자형, 경쟁자형, 성취자형, 개인주의 형, 경험지향 형, 사회의식 형, 통합형으로 분류하여 확인된 개개인에 따라 소비자들을 분류하여 예측된 소비자 행동을 묘사하는데 이용되었다. VALS1은 소비자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3가지 기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표 2-10>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소비자 유형(VALS 1)

유형		특성
욕구 충동형	생존투쟁형	● 생존하기 위하여 투쟁함, 불신감이 높음, 사회적 적응력이 낮음, 욕망에 의해 지배됨.
	생존유지형	● 안정에 관심, 불안정하며 경제적 의존적임, 세상물정을 따름, 출세에 집착
외부 지향형	귀속추구형	● 순응적, 인습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음, 전통적, 공식적, 귀소성이 강함
	경쟁추구형	● 야심적, 자기과시, 사회적 지위중시, 상층이동추구, 남성적, 경쟁지향
	성취주의형	● 인생에서의 성취, 성공, 명성중시, 물질주의적, 리더십과 능력추구, 안락 추구
내부 지향형	자기중심형	● 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극적인 것을 선호, 충동적이고 경험적, 자유분방함
	경험주의형	● 경험에 따라 행동방향 결정, 적극적이고 참여적, 인간중심적이고 예술적.
	사회의식형	● 사회적 책임 중시, 단순한 생활을 원함, 규모가 작은 것을 선호하는 내적성장 추구
	원만주의형	● 심리적으로 성숙됨, 적응력이 있음, 관대하고 자아실현 추구, 범 세계관을 갖고 있음

자료: The Stanford Research Institute(1989). VALS 1.

첫 번째의 욕구충동형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기호나 선호보다도 기본적인 욕구에 의하여 소비지출을 하는 집단으로서 이를 다시 생존투쟁형과 생존유지형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이다.

외부지향형의 소비자집단은 3집단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소비자집단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 집단에 속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소비가 자신의 소비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내부지향적의 소비자는 4개의 집단으로 세분화되고 있는데, 외부 지향적 가치관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욕구 지향적 삶을 추구한다.

이상의 3가지 범주의 집단 중 욕구 충동형 집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

고 내부지향형 집단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마케팅전략상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외부지향형은 비교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개로 구분된 VALS 2의 라이프스타일 집단은 <표 2-11>에서 설명되어 있다. 즉, 사람은 인생을 통해서 여기 제시된 라이프스타일 중 몇 가지 라이프스타일을 거쳐나가게 되며,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Kotler, 1997).

<표 2-11>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소비자 유형 (VALS 2)

유형		특성
원리원칙 추구형	성취자	● 최고의 소득과 여러 가지 많은 재원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자기 추구 지향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며, 일생에 있어 보다 새롭고 뛰어난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완수자	● 중년기로 책임감이 강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업인이다. 여가 활동은 주로 집에서 이루어지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회 변화에 아주 개방적이다.
	믿음자	● 평균 이상의 소득이 있는 원리원칙 추구 소비자로서, 보수성향적이며 예측력이 있는 소비자이다. 삶은 가족, 교회 공동체 및 국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위 추구형	성취자	● 직업과 가족으로부터 만족을 추구하는 일 지향적 사람들이다. 성취자는 정치적으로는 보수의적이며, 성공함을 보여주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한다.
	노력자	● 성취자의 가치관과 거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및 심리적 재원은 성취자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 상류층 집단의 소비자들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다.
행동 추구형	경험자	●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연령이 낮은 집단으로 많은 정력이 있으므로 육체적인 운동과 사회적 활동에 상당히 참여한다. 또한 그들은 몹시 욕심을 내는 소비자로서 새로운 것을 특히 좋아한다.
	제조자	● 그들은 자급자족과 자부심에 가치를 부여하는 집단으로서, 가족, 일 및 육체적인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것에 집중하며, 넓은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고전 분투형	● 최저의 소득의 소유자로서 소비자 지향성에 포함되어 있어 재원을 거의 소유하지 못한 집단으로서, 거의 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상표 충성적인 소비자가 될 경향이 있다.

자료: The stanford Research Institute(1989). VALS 2.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는 경제발달로 인한 소비자의 행동양식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학문적 목적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즉, 라이프스타일의 연구는 주로 표적시장을 발견하기 위한 시장세분화 전략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인구 통계학적 자료들을 기초한 시장세분화 전략이 소비자 구매행동 특성을 구분하는데 한계를 보이자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한 라이프스타일 연구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 결국,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종래의 인구통계학적, 사회통계학적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었던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함으로써 소비자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개념인 것이다(윤여산, 2004).

제 2 절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1. 이념성향에 관한 고찰

이념(ideology)의 정의는 신념체계, 또는 다수가 공유하는 포괄적이고 내적으로 일관성을 갖는 가치 정향(value orientation)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특정의 정치적 이념을 통해 유권자를 동원하는 이념 정당이 한국 정치에는 부재 한다는 점에서 이념은 집단적인 것이기 보다 유권자의 개인적 수준에서의 가치 정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 할 것이다.

정치이념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Downs(1957)는 이념을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자 또는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수반되는 정보 획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용절감 수단으로 이해하였고, 유권자들은 이념 공간(ideological spectrum) 상에 위치한 각 정당의 위치를 고려하여 자신의 이념적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입지한 정당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강원택(1998)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는 보수·안정·희구 계층에서 민주당 후보의 경우 변화·진보 지향의 유권자의 지지

가 높게 나타났으며, 두 후보 모두 자신의 지지자들과 이념적으로 근접해 있다고 인식되었음을 밝혔다. 김재환(1999)은 1998년의 지방선거 분석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을 지지한 유권자들 가운데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으며, 이에 비해 국민신당과 국민회의를 지지한 유권자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강원택은 저소득층, 저학력 층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반면 고소득층은, 고학력층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이 높게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재환은 연령이 진보-보수를 가르는 변수이며 저소득층, 비전문 층이 한국에서는 진보세력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성은 16대 총선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직업을 구분하여 노무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응답자들의 이념 평균 성향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집단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무직, 비노무직의 구분으로 인한 이념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직·사무직·학생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이념적인 성향의 차이를 가져다주는 것은 연령, 학력, 소득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력의 경우 대재 이상 집단과 중졸 이하 집단의 이념적 성향이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되었다. 중졸 이하 집단의 보수성과 대재 이상의 집단의 진보성이 구분되고 있다. 소득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갈수록 진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역시 젊은 층과 고령층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라이프스타일

1) 보수주의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라는 말은 심리적 태도로서의 보수주의와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로 나뉘어 사용된다(이명남, 2004). 심리적 보수주의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곳을 선호하여 변화를 싫어하는 ‘현상 유지’, ‘안정제일’의 심

리적 성향을 가리킨다. 심리적 보수주의와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인 태도로서의 보수주의가 현상에 집착하려는 것은 변화보다는 현실적 안정을 바라기 때문이며, 그러한 안정을 생활환경의 현상유지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보수주의적 심리태도는 개인적 또는 계급적 이익과 무관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이익이 동기가 되어 발생 한다. 이러한 심리적 보수주의 감정은 습관(전통)에 형성되고 공포심에 의해 자극된다. 따라서 습관과 공포심은 보수주의의 두 가지 심리적 요소이다(박영사, 1975).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보수주의는 잠재적인 심리적 태도가 역사적 계기에 의해 자극되어 표면에 떠올라, 특정한 사상적 조류를 응집시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보수주의 형성의 역사적 계기가 된 것은 1789년 프랑스혁명이다. 즉 시민계급의 주도로 진보적인 자유주의가 대두되자, 이에 맞서 귀족계급은 개념으로 총괄되는 사상적 조류를 낳았던 것이다. 귀족계급은 그들의 사회적 토대인 토지 소유의 영향 하에 이미 심리적 태도에 있어서 보수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토대에 동요를 느끼게 되자 의식적으로 시민계급의 자유주의에 맞서 보수주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를 사상사적으로 보면 프랑스혁명 이후의 역사적 단계에서 성립된 특징의 사상 조류이고, 그 세력은 봉건적 귀족계급이었다는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귀족계급의 사회적 기초가 붕괴되면서 보수주의의 역사적 의의도 상실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귀족계급에 대한 이 같은 언급은 비록 근대에 있어서 보수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찾는 뜻에서는 타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후의 사정은 달라졌다. 왜냐하면 19세기 이후로 ‘사회주의’의 대두에 따라 종전의 시민계급이 주도하던 진보적 자유주의가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되면서, 시민계급을 세력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주의가 재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를 단순히 귀족계급의 사상적 조류라고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원래 어떤 특징적인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온 것이므로 그 본래의 모습은 방어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회구조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현 체제에 대한 도전이 방어적 태세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주의자의 ‘현행제도 방어’는 주어진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조정과 적응 과정에 불과 한 것이다(이명남,

2004). 보수주의는 “기존의 사회질서, 도덕체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든가 타파하는 새로운 이념 내지 세력이 도전해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여 변화를 두려워하는 심리적 기질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철학적,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기존 체제를 옹호하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심리적 태도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라 정의 할 수 있다(정연식, 1997).

2) 진보주의

진보는 ‘현존체제를 지키자는 생각’의 보수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현존체제를 개혁해서 더 좋은 체제를 만들자는 생각’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수는 자본주의자이고 진보는 사회주의자이나, 공산국가에서는 사회주의자가 보수이고 자본주의자는 진보이다(이상우, 2001). 그러나 지난 세기 사회주의가 등장하던 시대는 투쟁 대상이 모두 자본주의가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보통 진보라고 하면 사회주의자들을 말했다.

이러한 진보라는 개념은 변화, 특히 “내적잠재력의 전개를 통해서 점진적이며 누적적으로 그리고 역행할 수 없게 진행되는 변화”(이준형 외, 1989)이해하려는 인간의 최초의 노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진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보다 나은 방향, 보다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보다 나은 것, 보다 완전한 것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진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진보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수도 진보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진보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진보사관’이다. 진보주의는 인류가 미개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끊임없이 진보를 거듭하면서 무지를 극복하고 자신의 환경을 정복하면서 보다 진보된 정신과 물질, 그리고 문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 한다(김병국, 1999). 따라서 진보사관의 특성은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점이다. 그리고 늘 과거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3) 중도주의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중도주의는 앞서 언급한 진보주의나 보수주의 그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않는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국수주의자와 혁명적 사회주의자 사이에서 화해와 단결을 부르짖던 세력을 지칭한다. 이러한 중도주의는 생각에 따라 진보로 갈 수도 있고 보수로 갈 수도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9)에서 벌인 여론조사결과, 중도의 이념지향성을 가진 국민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33.3%), 진보(21.9%)가 뒤를 이었다. 중도성향이 10여년 전과 비교해 17%가량 많게 나타났다.

제 3 절 후보자 선택행동

1. 유권자의 투표행동 이론과 분석모델

1) 투표행동의 개념

투표행태는 유권자가 선거에 임하여 투표를 할 것인가? 기권할 것인가? 투표를 한다면 후보자 중에서 어느 후보를 찍을 것인가? 정당 중에서는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인가의 최종선택에 이르는 표심의 변화 형성 결정의 동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투표행태(voting behaviors)란 유권자가 선거에 있어서 투표로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기권하는 의사결정 양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유권자들의 사회적 특성, 정당일체감 등 심리적요인, 합리적 · 경제적요인, 가치관, 인지역량 정보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투표 행태의 연구에서는 선거에 관한 행동과학적 분석을 의미하고 분석의 단위는 개인의 투표라는 행동이며, 투표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고찰한다(조재목, 2005). 이러한 투표행태의 연구는 사회학적 접근방법, 심리학적 접근방법, 합리적 접근방법, 인지적 접근방법 등이 있으며, 투표선택의 3당사자라 할 수 있는 후보자(정당)지향, 유권자지향, 정책 · 쟁점지향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투표행태는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 투표행동, 투표행위, 투표행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투표행태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선거의 후보자 또는 정당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권력을 획득하기 때문에 선거 시 제시한 정책공약을 지킬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구성된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집행기관과 국회 및 지방의회 등 의결기관은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정책화 하고 이를 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거는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의 기회이며,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선거공약화 함으로써, 정책 산실의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책공약은 유권자의 심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수준에 정책의 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권자의 심판 즉, 투표행태가 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투표행태의 연구는 바람직한 후보자 선택의 역량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목적은 매우 다양하지만 하나의 목적은 연구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통해서 사회의 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이를 인간이 통제하고 조정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행태의 연구를 통해서 유권자가 어떤 요소에 의해 투표를 했으며 그 요소가 어느 정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선택 요인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이론을 정립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2) 유권자 투표행동이론

유권자의 투표행동 이론은 크게 유권자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한 연구와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Berelson의 연구 이전까지만 해도 유권자들은 이성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합리적 행동이론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Berelson은 유권자의 정치정보수준이 낮다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합리적 행동에 관한 가정을 반박한 이후 비합리적 투표행동을 가정한 이론들이 등장하였다(고영욱, 1993). 이러한 연구는 정치 불신과 더불어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증대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도 시사적이다.

(1) 합리적 투표행동 이론

합리적 투표행동 이론 중 대표적인 이론은 이슈프리미엄이론, 미래약속제시이론, 사표방지이론, 보상처벌이론 등이 있는데 이들은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이슈를 중심으로 투표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보는 이론이다. 첫 번째로 이슈프리미엄이론이란 유권자, 후보자 모두 합리적이라고 가정한 이론으로 유권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슈화하여 공공적인 아젠다로 끌어내고 이에 대한 적격자임을 인식시켜 이슈프리미엄을 확보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낸다는 이론이다(송원근, 1992).

두 번째로 미래약속이론은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이슈들이 앞으로의 약속을 얼마나 잘 제시해 주며 달성될 수 있는가를 판단함으로써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행위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후보자들이 미래의 약속을 제시할 때 공공여론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이슈입장이 변한다고 보는 공공여론과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과는 무관하게 중요한 이슈를 책임 있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책임정당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번째로 사표방지이론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에 주목하여, 아무리 그 후보의 이슈입장에 찬성한다고 하여도 그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아니하고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 가운데서 자신의 이슈선호에 근접한 견해를 표명하는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이론이다.

네 번째로 보상-처벌이론은 선거가 과거의 업적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 미래의 약속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업적에 대한 회상적 판단에 의하여 선거결과가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2) 비합리적 투표행동 이론

비합리적 투표행동 이론은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투표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특성이나 유권자의 감정적 측면을 근거로 투표행동을 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사회적 판단이론, 후보자 특성이론, 정치적 단서이론 등과 동조투표, 매수투표, 연고투표 등 비합리적인 투표행태 등이 있다. 사회적 판단이론은 선거상황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선 자신의 입장과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싫어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과 먼 것으로 왜곡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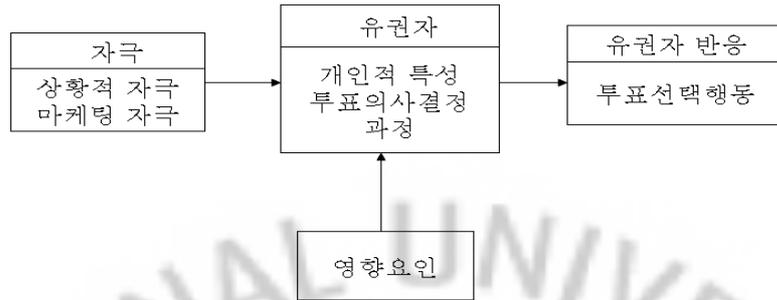
여 투표를 한다는 이론이다(M. Sherif and C. I. Hovland, 1961).

후보자 특성이론은 유권자들이 이슈에 대한 평가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매력이나 특성에 근거하여 투표한다는 이론으로, 유권자들이 특정후보를 이슈이외의 원인 때문에 좋아하고 특정후보가 제시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 한 거의 무비판적으로 동조한다는 이론이다(Arthur H. Miller et al. 1986). 여기에서 후보자의 특성은 후보자의 성격이나 매력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능력 및 성향에 관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정치적 단서이론은 유권자들이 특정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자각할 때 이용 가능한 관련단서들을 사용하여 후보의 입장을 추론하여 투표한다는 이론으로 정치지각추론 이론이라고 한다(Stanley Feldman and Pamela J. Canover, 1983).

3) 유권자 투표행동 분석모델

유권자의 투표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분석구조는 S-O-R모델인데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극과 영향요인이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주어 유권자의 투표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투표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설명모델은 관찰된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지적인 관심 이외에 보충된 설명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처리하기만 하면 관심을 두고 있는 행동을 설명, 이해 및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며, 주요 설명 변수 중 몇 개를 조작함에 의해 설명된 모델들은 그 행동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에 관련한 기존의 대표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유권자 투표행동 분석모델



자료 : 송명학(2003). “정치마케팅PR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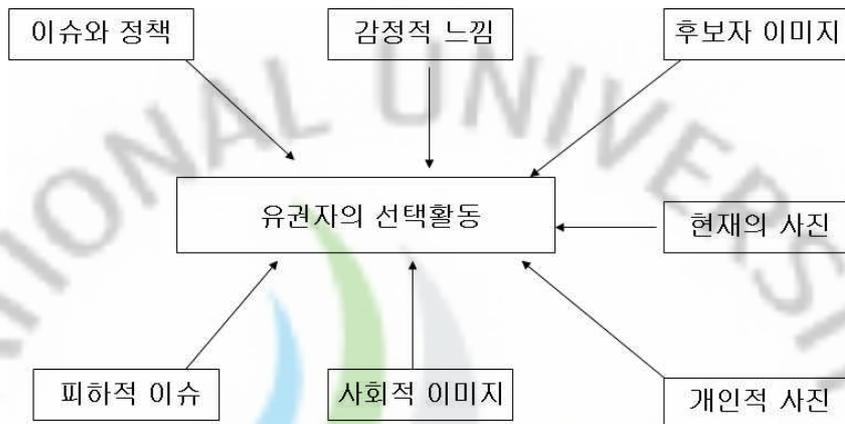
(1) Sheth와 Newman의 모델(1985)

Sheth와 Newman은 유권자들의 투표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있어서, 유권자, 구전의사유통(word-of-mouth communication) 및 대중매체 등의 다양한 원천에 기인하는 인지적 믿음을 개발하여 자신들의 유권자투표행동 분석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Sheth(1975)에 의해 제안된 일반적인 개인선택 행동모델에 근거하는 것으로 핵심은 유권자들의 선택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이슈와 정책, 감정적 느낌, 후보자이미지, 피하적 이슈, 사회적 이미지, 개인적 사건 그리고 현재의 사건 등을 제시한 것이다(Bruice I. Newman and Jagdish N. Sheth, 1985).

이슈와 정책은 경제, 외교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말하며, 감정적 느낌은 투표에 있어서 후보자에 의해 제기되는 희망, 책임감, 애국심과 같은 정서적인 느낌을 말한다. 또한 후보자의 이미지를 말하며, 후보자와 그의 정강·정책에 대한 친밀감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피하적 이슈는 후보자에 의해 제공된 호기심, 지식탐색욕구에 대한 지각적 만족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를 말하며 사회적 이미지는 후보자가 속한 인구 통계적, 사회경제적, 문화 도덕적, 정치사상적 계층과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긍정, 또는 부정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Berelson 등은 후보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투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적 사건은 유권자의 투표행동을 바꿀 수 있는 후보자의 개인적 사건은 유권자의 투표행동을 바꿀 수 있는 후보자의 개인적 사생활을 말하여 현재의 사건은 캠페인 기간 중 제기되는 이슈나 정책의 집합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권자의 투표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상황이 포함된다. Sheth와 Newman의 모델은 <그림 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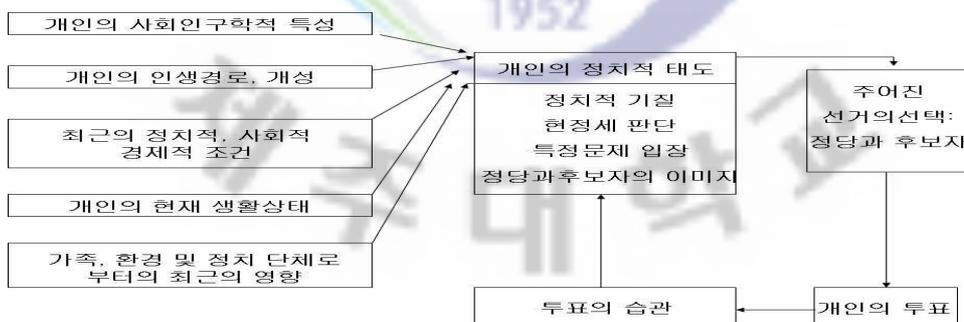
<그림 2-2> Sheth와 Newman의 모델



자료: Sheth & Newman(1985), A model of Primary vote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45, Sept, 1985.

(2) Lindon의 모델(1973)

<그림 2-3> Lindon의 모델



자료: R. Lindon(1973), Introduction to Positive Political Theory. New Jersey: Prentice-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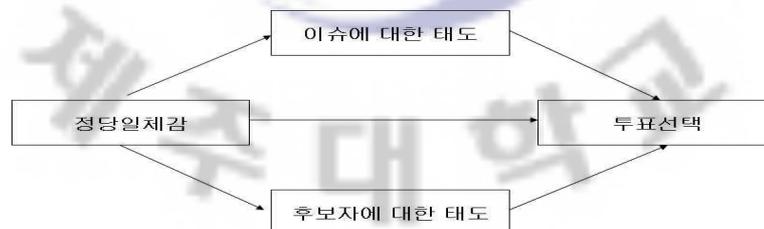
Lindon(1973)은 한 개인의 투표는 그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그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선택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파악하여 유권자가 투표의 사 결정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변수들을 고려하고, 또 그 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을 엄격하게 기술해 주는 이상적인 모델을 <그림 2-3>에 제시하였다.(이상울, 1990) 그러나 이런 이상에 가까운 모델은 소비자 행동모델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적인 유권자 행동분석에는 아직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3) Campbell의 모델(1960)

Campbell의 모델은 1970년대 초까지 유권자행동을 이해하는 지배적인 모델이었는데 campbell은 여기서 정당일체감, 이슈에 대한 태도 및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장기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 직접적 영향 요인인 이슈 및 후보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은 구성요소의 개념화와 측정에 문제가 있으며,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관계, 유권자들의 태도변화 여부 및 방법을 설명해주지는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림 2-4> Campbell의 모델



자료: A .Campbell(1960), The American Vote,John Wi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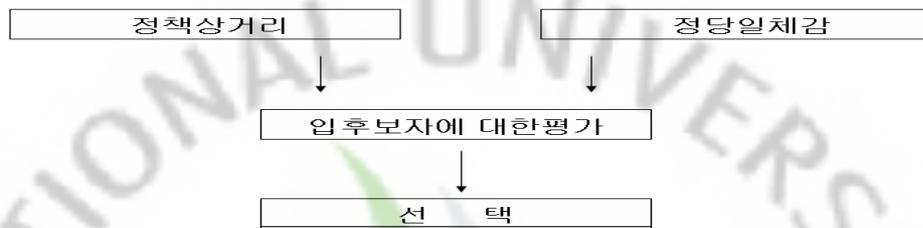
(4) Page와 Jones의 모델

이는 Campbell의 일방적 인과모델의 타당성을 반박하면서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일체감, 정책상의 거리 및 입후보자에 대한 평가 사이의 상호관계를 강조한

모델이다(이술이, 1988).

이 모델은 자료 분석을 위한 측정 자료의 개념상 분류에 문제를 안고 있다. Page와 Jones의 모델은 <그림 2-5>에 나타나 있다.

<그림 2-5> Page와 Jones의 모델



자료: 이술이(1988), “한국 국민의 투표행태와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재인용.

4) 유권자 투표의사 결정과정

유권자들은 선거라는 사회현상에 직면하면서 먼저 투표에 참여한 것인지 참여치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일단 투표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투표의사 결정과정을 거쳐 투표를 하게 된다.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 모델은 Shama의 모델과 Raid의 모델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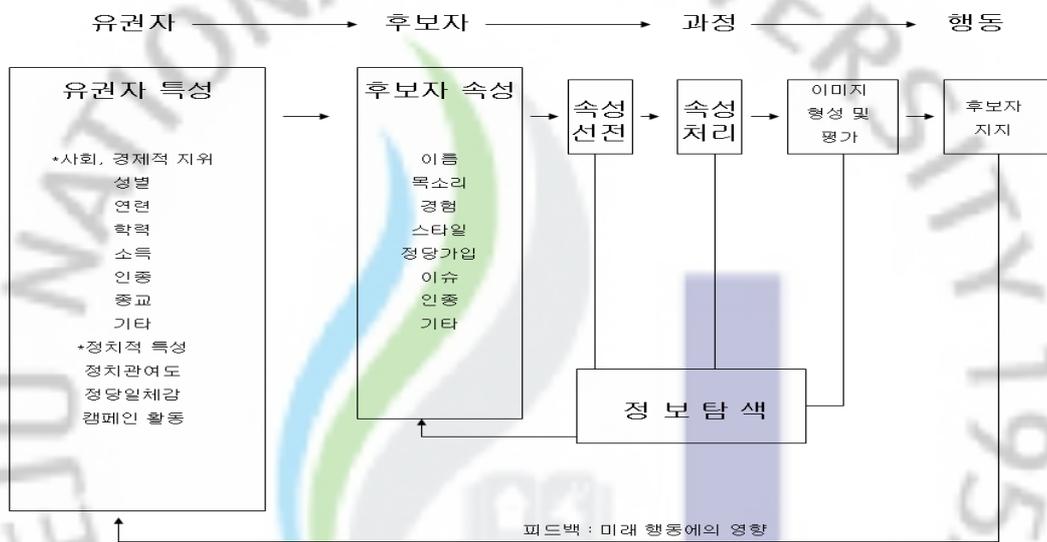
(1) Shama의 유권자 의사 결정 모델(1976)

샤마는 유권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유권자가 정치후보자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모델을 <그림 2-6>와 같이 제시하였다.

유권자는 특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정당참여 경험, 이슈에 대한 의견 등 후보자의 특성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후보자와 상호작용하며,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각각의 특성들에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미래투표행동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후보 이미지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였는데, 즉 후보자 이미지는 유권자 특성과 후보자 속성이라는 독립적인 두 가지 변수의 결과라는 것이다. 유권자 특성과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는 먼저 속성을 선택하고, 둘째 속성을 처리하며, 셋째 평가하고, 넷째 행동하며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통해 미래의 투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2-6> Shama의 유권자 의사결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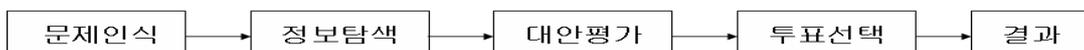


자료 : Shama, A.(1976) "The Marketing of Political candidates" Journal of th Academy Marketing Science.

(2) Raid의 투표 의사 결정과정 모델(1988)

Raid는 유권자들의 투표의사 결정 과정이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과정과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앵겔-블랙웰의 구매결정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섯 가지 단계를 원용하여 유권자의 투표의사 결정을 <그림 2-7>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7>투표의사 결정과정



자료: David M. Raid(1988), "Marketing the Political Product",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Sept.

먼저 문제인식의 단계는, 정치과정에 있어 선거실시의 공표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게 되며, 유권자들은 투표여부와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 인가하는 문제를 인식 하게 된다.

다음은 유권자들은 인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한 가능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데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한 외부탐색과 자신의 과거경험이나 기억을 통한 내부탐색을 하게 된다. 외부탐색으로 획득된 정보들은 문제 인식을 더욱 증폭시키며, 어떤 특정의 정보원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권위 있는 정보채널은 유권자들에게 의미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셋째 대안 평가의 단계인데 유권자들은 자신이 정보탐색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과 방식으로 마무리된 후에는 특정후보자를 결정하고 투표하게 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는 마지막 순간의 여항들이 지금까지의 결정에 대해서 여전히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투표 전 친구와의 토론이나 투표장 입구에서 특정 후보자의 운동원을 마주치는 것 등의 상황조차도 유권자의 결정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로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아니든 간에 그가 행한 선택을 기억하게 된다. 만약 당선되었다면 긍정적으로 표현하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권자는 자기합리화를 하게 되는데 효과적인 캠페인을 위해서는 이런 유권자의 심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유권자의 정보원천

유권자의 후보자선택 행위는 그리 단순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특히, 선거캠페인 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많은 정치정보들은 투표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이는 유권자가 개개인의 기존의 성향과 외부의 자극이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인 투표행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투표의사결정과정은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며, 외부자극에 대하여 개개인들은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 즉 외부의 정치정보에 대한 인지방식의 차이는 결국 지각된 정보를 후보자 평가에 어떻게 사용 하는가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선거기간동안 유권자에 의하여 인지되는 정치정보들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정치정

보의 인지가 매스미디어의 내용이나 후보자의 캠페인 내용을 단순히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유권자의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정치적 이슈나 정당적 배경과 같은 정치적인 요소가 주로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탈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현대정치에서는 정치적인 요인보다 후보자의 개인적인 이미지와 같은 비정치적인 요인들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유권자들은 동기가 유발되면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정보탐색을 하게 되고, 유효한 정보가 획득되면 누구에게 지지나 투표행위를 할 것인가는 유권자 개인의 지각에 의존한다(이학식 · 안광호 · 하영원, 1990).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정치커뮤니케이션 요인으로는 TV, 신문,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외에도 대중연설, 홍보전단, 포스터, 우편, 전화 및 개별방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한국 언론연구원, 1991). 이들 정치 마케팅 요인들 중에는 선거뉴스, 보도, 논평, 및 사설, 정치광고, TV토론, 여론조사 결과보도 등에서 매스미디어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영향력도 높다.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가 자신의 표적시장(target market)에 잘 접근하여 유권자들의 관심과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매스미디어 요인 중에 신문이나 잡지의 구독은 독자로 하여금 선거에 참여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TV시청은 투표참여 그 자체에는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TV를 통한 후보자 이미지의 전달은 후보들은 TV의 속성에 맞추어 정책이슈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매스미디어의 보도방식이나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후보들의 선거운동방식이 결과적으로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의 이미지 중심의 투표를 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있다(권혁남, 1989).

3.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요인

O'keefe(1975)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요인으로 정당 적 요인이 감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캠페인 이슈와 후보자의 이미지의 중요성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한다. 반면 선거이슈와 이미지요인 모두가 투표의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이 병존하는 이유로 O'keefe는 선거이슈와 이미지는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개념적으로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정당 · 후보자 · 이슈의 삼분법은 유권자가 투표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속성들 간의 복잡성 즉, 상호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용한 방법이 못 된다는 것이다

결국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후보자의 정당 적 배경, 후보자의 성격이나 외모와 같은 이미지, 이슈에 있어서 후보자의 위치, 후보자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 등과 같은 요인들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떤 요인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다. 설령 각각의 요인들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효과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요소들 간의 관계에 있어 인과적인 방향이 불분명하고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R. P. Abelson, D. R. Kinder, M. d. Perters, and S. T. Fiske,1982) 예를 들면 유권자들은 인지된 후보자들의 개인적 속성들에 의하여 특정 이슈에 있어서의 위치를 판단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후보자들의 특정 이슈에 있어서의 위치로서 개인적인 속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선거이슈와 후보자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유권자들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은 각 나라마다, 정치·사회·경제·문화적 환경특징에 따라, 후보자의 유형(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및 선거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유권자들의 투표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는 후보자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

향을 미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투표의사 결정과정에는 정치·문화적 특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선거당시의 정치체제나 정치적 상황, 후보자의 속성, 정당과의 연계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요인을 유권자의 투표결정과 연결시키기는 어려우나,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공급자 측 요인

(1) 후보자 요인

후보자 요인은 후보의 개인적 속성(personal attributers)과 관련된 요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후보의 개인적 속성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특정후보가 정치인으로서 또는 일반인으로서 갖고 있는 자원이나 특성으로 예컨대 현재의 지위 및 과거의 경력, 정치철학 성격이나 자질, 능력, 외모, 출신지역, 성장과정, 교육, 종교, 가족, 사생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후보자의 개인적 속성 등의 대부분은 유권자들이 직접 접촉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기보다는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정치후보자에 대해 갖고 있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특성 등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인식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인식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나쉬와 버프(P.B Natches & Bupp, 1968.)등은 그들의 논문에서 유권자의 투표의사 결정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후보자 요인을 꼽았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석연구에서 유권자의 투표의사 결정시 이슈에 대한 역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였지만, 연구결과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가 유권자 투표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P. B. Natches and I. C. Bupp, Candidates, 1968).

또한 Miller(1973)는 그의 연구에서, 이슈요인이 중요하지만 투표의사 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후보자에 대해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지각된 이미지이고, 이슈는 유권자에게 있어서 다른 여러 개의 후보자 특성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또한 Shama(1976)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후보자의 이미지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 행동분석에 비유하여 유권자행동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2) 정당요인

이는 유권자의 투표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후보의 소속정당과 관련된 요인으로써, 후보의 소속정당이나 후보자나 소속된 정당의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인간은 자신의 정치 환경에 대한 학습을 통해 여러 집단이나 정치적 상징에 대한 연대감과 혐오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연대감과 혐오감을 정당 일체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기초 정당일체감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정당일체감을 준거집단의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즉 정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태도나 행위를 구체화시키고 준거로 작용하게 되어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지정당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준거집단의 현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은 Campbell이나 Miller등에서 볼 수 있다. Campbell, Miller 등은 그들의 저서에서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여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후보나 국내외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이미지와 같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보다도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유권자들의 역대 대통령후보에 대한 인지요인의 변천과정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정당요인은 이슈나 후보의 개인적 속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선거운동 요인

후보자 측의 선거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권자에게 전달되어 호감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현행 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의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타 후보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권자에게 주목받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선거 홍보물과 후보자의 대중연설능력 그리고 소속 운동원들의 태도 및 운동방식 등이 있다.

먼저 선거홍보물은 유권자의 가정으로 우송되므로 유권자가 버리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후보자를 선전해 줌으로 제작에 있어서 전문적인 시각디자인의 효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를 담은 홍보물에 대부분 관심이 없는 상태이므로 홍보물을 펼쳤을 때 받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시각디자인기법을 통해 유권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간결하

고 명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읽혀지지 않으면 무효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대중연설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소신을 전달하기 위해 장황하고 지루하게 연설한다면 거기에 귀 기울일 유권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핵심을 강조하되 부드러움과 리듬을 살려 유권자에게 관심과 자극을 전달함과 동시에 정책이나 주장을 덧붙여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찾아내어 연설한다면 유권자는 높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다음으로 제한된 기간 안에 후보자가 모든 유권자를 만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원들의 운동방식이나 태도를 통해 후보자를 판단하기도 한다. 후보자조직원(운동원)등의 이미지는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갖는 인식에 상당한 작용을 한다. 진지하고 역동적인 운동원들에게서 유권자들은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하며,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운동원을 통해 후보자를 동일시하기도 하므로 운동원들의 선거운동방식이나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 수요자 측 요인

(1) 유권자 요인

유권자 요인으로는 그들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종교, 결혼여부, 주거지의 형태, 출신 칙 거주지역 등의 사회 · 인구 통계적 특성과 정치에 대한 태도나 신념, 관심도, 매스미디어 이용행위, 개성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성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요인으로 다루었는데 그것은 성별에 따른 지지성향이 과거요인만을 아래에서 따로 다루었다. 유권자의 행동은 개인적, 심리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 요인을 후보자가 통제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선거전략 수립 시에 이들 요인을 반드시 면밀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요인 즉, 준거집단(reference groups), 가족 그리고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준거집단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유권자의 행동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유권자를 새로운 행동에 노출시키며, 둘째, 유권자의 태도와 자아개념(self-image)에 영향을 주고, 셋째

유권자의 실제적인 후보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순응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유권자의 투표의사결정은 그들의 연령, 생화주기단계, 직업, 경제적 형편, 라이프스타일, 개성, 자아개념 등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동기부여, 지각, 그리고 신념과 태도 등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지각은 동일한 자극에 대해 세 가지 지각과정 즉, 선택적 노출, 선택적 왜곡, 선택적 보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자극에 대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유권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정치적 자극에 노출되어 있지만 유권자들은 그 자극 모두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로의 선택적 주의 및 지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자극에 대해 유효하게 반응하는가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 유권자들이 높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지각하게 되는가를 보면, 첫째, 자신과의 동기 및 욕구와 관련성이 높은 정치적 자극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둘째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자극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진기함이라든지, 보통의 자극에 비해 큰 자극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2) 성별요인

성별 요인은 투표행동을 결정할 때 유권자의 성별이 그들의 투표행동과 의도, 믿음 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성별과 관련된 차이점들이 내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는데, 이런 연구들은 심리학과 교육학의 인성의 범부에 있어서 성별과 관련된 이구도의 차이에 대해 행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여성은 투표의사결정을 할 때 인물에 보다 더 치우쳐있고, 남성보다 후보자의 성격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ampbell은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더 후보자의 요인에 민감하고 이슈요인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Sapiro(1981)는 그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여성의 성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성공보다 낮은 기대감을 갖는다고 밝히고 또한 특히 제공된 정보가 낮은

수준일 때에 성별은 후보자를 평하는 단서(cue)를 제공한다고 하였다(Virginia Sapiro, 1981).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활동의 폭넓은 확대로 80년대 들어서서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비해 훨씬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관심의 확대로 이전의 연구에서 밝혀진 위와 같은 결과들은 많이 퇴색되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후보자의 인성과 이슈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평가하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여론선도자(opinion leader)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Bruice, Newman and Sheth, 1984).

(3) 관여도 요인

관여도 요인은 관여도가 유권자들의 투표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적인 차이를 설명해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여도라 하면 어떤 주제나 목적에 대해서 갖는 전반적인 관심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유권자의 투표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하면 후보결정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중요한 믿음이나 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수반하게 될 때 유권자는 투표의사 결정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여도와 투표의사결정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이론 중 하나는 선택적 인지이론(selective preception)이다. 고 관여 상태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선호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정보는 찾고, 자신의 선호에 위배되는 각종 정보들은 회피, 무시, 왜곡,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Robertson은 관여도와 정보처리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저 관여 상태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설득적인 정보의 전달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Krugman과 Ray는 그들의 소비자 행동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고 관여 상태의 소비자들은 그들의 신념이나 태도유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4) 후보자와 관련성 요인

관여도 요인과는 별도로 한국정치 특성상 학연, 지연, 혈연 등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련성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서구의 합리적 사회문화와는 달리 정

(情)적이고 사(私)적인 문화에서 기인한다. 공(公)적인 판단에 있어서 개인적인 친분감정이 개입되는 특징은 후보자로 하여금 유권자와의 개별적 친분과 연관성을 만들게 하고, 유권자는 비합리적 투표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후보자나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유권자의 각종 경조사를 비롯한 개인적인 일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데 유권자는 이들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3) 상황 관련 요인

(1) 이슈 요인

이는 유권자가 후보나 후보의 소속 정당의 특정문제나 정책에 대해 갖게 되는 입장이나 의견이 유권자의 투표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당의 역할과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드는 한편으로 196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TV를 비롯한 매스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당요인보다는 이슈요인이 더 중요한 유권자 투표의사결정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이슈투표방식은 중요한 이슈에 있어 후보자와 유권자들 사이에 입장의 유사성으로 지지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슈에 따른 투표는 현대의 선거행위를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인식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슈를 중시하는 현상은 정당의 역할이 퇴조하면서 더욱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V.O.Key(1956)의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유권자를 바로 보는 경향에 반대하면서 유권자는 정당과의 일체감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한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K. O. Key, The Responsible Electorate, Mass. 1996).

그러나 이슈에 의한 투표의 성향은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른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유권자들은 이슈를 평가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종류의 이슈가 선거전에서 중요한 것인가는 판단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이슈의 유형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슈에 의한 투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슈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슈를 유형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평화, 번영과 같은 사회의 기본적인 목적과 관련된 이슈는 후보자들 간에 동의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후보자가 과연 그 이슈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의 판단으로서 중요하다(D. E, Stokes(1966)). 즉 후보자와 이슈간의 관련성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간의 갈등이 되지 않는 이슈도 이 경우에는 중요한 선거이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가 특정 이슈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유권자가 정치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자신의 이상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Downs(1960)는 유권자들이 시민으로서의 그들에게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강이나 정책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였고 Campbell은 이슈요인을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선거이슈란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자간에 불일치를 보이는 토픽으로 볼 수 있는데, 이슈에 대한 인식은 현재 무엇이 이슈이고 그 이슈의 역사관련 사실 그리고 제시된 대안들과 각 정당의 입장 및 그것이 가능한 결과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유권자로서는 고도의 정치적 지식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슈중심의 투표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반응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초점이 되는 이슈의 경우에도 유권자의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슈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이슈가 나타내는 후보의 개인적 속성일 때가 많다.

(2)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후보자, 유권자, 정치마케팅커뮤니케이션 요인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을 선거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로, 정당, 후보자, 유권자 등의 요인을 내생변수로 나누어 선거 캠페인 전략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이 유권자 의식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되기도 한다.

4) 국내 선행연구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관련된 우리나라 선거의 후보자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1970년대 이후 행태주의 접근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윤천주의 “읍민의 투표행태”가 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촌야도’와 ‘지역주의’ 및 ‘정당’ 또는 ‘인물분위’였다. 이는 주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택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목적과 관련된 국내 연구 자료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임동갑의 박사학위논문인 “한국 지방 자치선거에서의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 서울시와 성남시를 중심으로”가 있다.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연구로는 김육의 “거주지 규모와 연령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와 이현우의 “동시선거 제도와 유권자의 선택” 그리고 황아란의 “6·4 기초단체장 선거와 현직효과” 등의 논문이 있다.

먼저 제1회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논문에서 임동갑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참여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여러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종속 변수는 선거참여행위, 즉 투표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를 정치적 요인, 환경적요인 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치적 요인에 속하는 변수로 여야성향, 후보자 선호도, 정책, 쟁점, 지방선거 참여경험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적 요인에 속하는 변수로는 정치문화, 정보전달매체, 선거제도 등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선거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치관심도, 출신지역, 투표효능감, 정치문화, 후보자 선호도 등이었다. 또한 6·27 지방선거에 대해서 3김 직할통치에 의한 지역갈등의 확대 재생산, 정책·공약이 사라진 인물중심의 선거운동, 혈연중심의 연고주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 및 혐오 현상 등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4개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점을 지적,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과 의식개혁을 들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성정당의 개혁과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거법의 탄력적인 개정과 지방선거의 분리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의식개혁 측면에서는 유권자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능동적으로 참여, 후보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참여 문화를 창조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임동갑, 1995).

1998년 6월 치러진 제2회 동시지방선거의 투표행태와 관련된 논문은 앞서 언급한 김욱(1999)·이현우(1999)·황아란(1999)의 논문 등이다.

김욱(1999)은 그의 논문에서 사회·경제적 변수인 연령과 거주지 규모가 각각 어떻게 유권자의 투표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즉 종속변수는 투표참여, 독립변수는 연령과 거주지규모로 설정하여 독립변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먼저 거주지 규모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즉 소위 '도저촌고' 현상은 통상적으로 동원투표 이론이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 왔으나, 여기서는 동원투표라는 개념을 일반화함으로써 이 현상을 합리적 선택이론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당시 도저촌고 현상의 둔화추세를 동원투표에 대비되는 자발적 투표 참여의 중요성 증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령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이론에 의해 설명되어 왔으나, 이러한 기존의 설명 역시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선거문화 및 선거제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령의 효과는 첫째, 투표참여에 있다 보고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연령에 다른 휴일 문화를 고려, 연령이 낮은 유권자는 연령이 높은 유권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투표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이나 소득 변수들은 자발적 투표 참여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동원된 투표참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연령은 긍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있다.

이현우(1999)는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동시에 4개의 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유권들의 선호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동시선거라는 제도로 인하여 유권자들은 4개의 선거에 모두 참여해야만 하는 강요된 투표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하나의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4개의 선거 중 자신이 참여의사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던 선거에도 참여해야 하는 현상이 생겨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강요된 투표는 어떤 투표결정 과정을 거치는가에 관심을 두고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슈 투표의 가능성과 정당일체감에 대한 가능성을 동시에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구성하여 광역단체장 선거와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는 고려한

거의 모든 독립변수의 계수 값이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광역의원선거에 선거관심도가 낮았다는 것을 감안 하면 유권자들이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정을 광역단체장선거에서의 투표결정과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광역단체장선거의 투표결정에 따른 일괄 투표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이 현우는 동시선거제도는 강요된 투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선거 결과에 있어 유권자들의 선호를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아란(1999)은 제2회 동시지방선거 가운데 기초단체장 선거에 초점을 두고 현직효과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규명했다. 분석결과 첫째, 현직 기초 단체장의 재 선율은 정당소속의 현직후보가 무소속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열기의 선거에서 정당과 현직이 투표선택의주요 기준이 되는 중요 변수임을 시사해준다. 현직후보의 재 선율은 도농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도저촌고의 현직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투표참여의 도저촌고 현상과 병행하는 것으로 현직 기초단체장의 인지도와 선거관심 등 현직의 영향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셋째, 기초단체장 후보의 현직 보유 여부는 후보득표율과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규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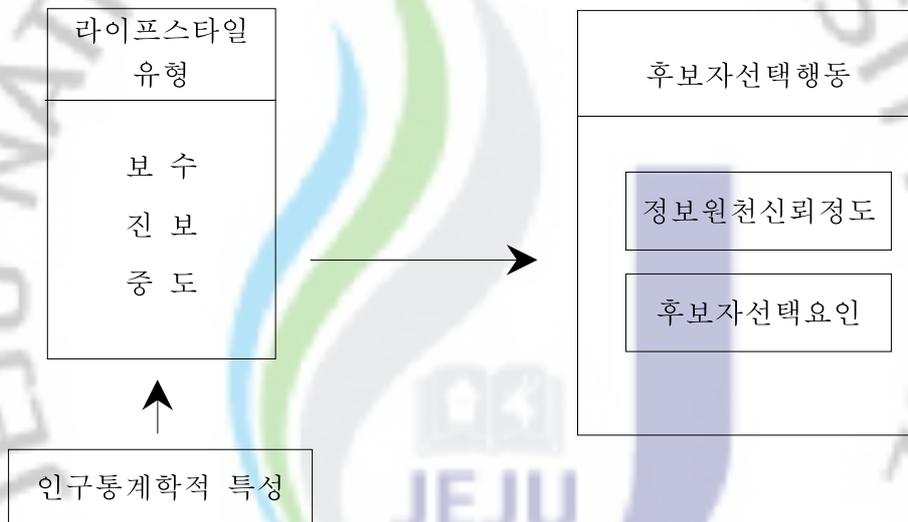
제 3 장 연구모형 및 설계

제 1 절 연구 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후보자선택행동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2. 가설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선행연구자들의 투표행태 연구 및 관련가설에 대한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평소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심을 가져온 본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구성 하였으며 특히,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후보자선택 행동이 어떤 유의성을 나타내는지에 초점을 두고 구성 하였다.

1) [가설 1]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진보, 보수, 중도)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 1] 에 대한 선행연구(조재목, 2005)로는 연령(세대),성별, 소

특 수준에서 연령(세대)과 학력은 정당지지간의 유의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0대 초반 이하로 내려 갈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정당에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성별과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이념 성향을 알 수 있는 정당지지간의 유의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 [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위 가설을 통해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출생지와 결혼여부를 추가하여 설정 하였다.

[가설 1]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진보, 보수, 중도)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 연령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 성별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 소득수준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 학력수준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 출생지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 : 결혼여부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가설 2]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정보원천별(친구, 이웃, 가족,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정당홍보물) 신뢰정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가설 2] 에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의 자료에 대한 한계성으로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정도의 측정을 ‘매우 신뢰 한다’와 ‘다소 신뢰 한다’를 신뢰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와 ‘별로 신뢰 하지 않는다’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재분류하고 교차분석을 통해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위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정보원천별(친구, 이웃, 가족,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정당홍보물) 신뢰정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친구·이웃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가족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인쇄매체(신문, 잡지)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방송매체(TV,라디오)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5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인터넷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6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정당홍보물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가설 3]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선택요인평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후보자의 선택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이 후보자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본 연구 [가설 3] 에서 선정한 후보자의 선택요인으로는 소속정당, 학력, 정치경력, 나와 같은 지역출신, 공약, 도덕성, 혈연, 인물(업무수

행능력), 인지도 등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자들의 후보자 요인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보면, 정치신인은 후보자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지만 선거기간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고 평가되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ZuKin, Cliff & Keeter,198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후보자 요인보다 정당요인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갑윤·이현우(2002)의 분석결과 후보자요인이 정당요인 보다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자는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후보자의 선택요인평가에 대해 도지사 선거와 도의원선거를 구분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평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소속정당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학력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3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정치경력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4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나와 같은 지역출신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5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공약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6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도덕성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7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혈연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8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인물(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9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인지도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가설 4]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의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평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 4] 에 대하여는 도의원선거에 대한 분석으로 [가설 3] 과의 동일한 맥락의 후보자 선택요인들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의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평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1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소속정
당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학력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3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정치경
력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4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나와
같은 지역출신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5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공약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6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도덕성
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7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혈연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8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인물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9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인지도
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조사 설계

1. 조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
320명을 대상으로 편의적 표본추출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은 2
009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완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시행하였다. 회수된 320부의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39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281부의 표본을 연구의 유효 표본으로 활용하였으며 통계처리는 통계패키지인 SPSS/WIN 12.0을 이용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 구성은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이론을 근거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크게 7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난 선거에 있어서 투표과정은 총 3개의 문항으로 명목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선호정당에 대한 문항은 총 7개의 문항으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향후 지방선거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항으로는 도지사 선거와 도의원선거를 구분하여 총 9개 문항으로 ‘전혀 중요치 않다’를 1점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선거에 있어서의 정보원천의 신뢰정도에 있어서는 총 6개 문항으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은 총 42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근 도민 사회의 큰 관심사항에 대한 문항으로 총 4개의 문항으로 ‘매우반대’를 1점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 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소득수준, 직업, 출생지, 결혼여부 등 총 7개 문항으로 명목척도로 구성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도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값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Varimax rotation)을 실시하고, 요인분석에서 나온 요인 적재치를 중심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최적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유형(진보, 중도, 보수)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정보원천의 신뢰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라 지방선거(도지사, 도의원)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선택요인(소속정당, 학력, 정치경력, 나와 같은 지역출신, 공약, 도덕성, 혈연, 인물, 인지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제 3 절 변수의 설정 및 조작정의

본 논문의 목적이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후보자선택 행동의 분석에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는 유권자의 정보 원천(친구·이웃, 가족,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정당홍보물)과 후보자의 선택요인(소속정당, 학력, 정치경력, 나와 같은 지역출신, 공약, 도덕성, 혈연, 인물, 인지도)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진보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유권자 자신의 이념적 성향 즉 진보, 중도, 보수주의적 성향에 따라서 표심형성의 본바탕이 되며 후보자 선택에 대한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1) 종속변수

(1) 정보원천

정보원천은 투표의사결정에 있어 유권자의 각중요인간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를 어떤 경로가 보다 유의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요인을 보면 친구·이웃, 가족, 인쇄매체(신문, 잡지), 방송매체(TV, 라디오), 인터넷, 정당홍보물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선택 할 것인지 의사결정 함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통해 중요하게 검토되는데 유권자가 일반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를 접하기가 어렵고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보원천에 대한 요인들이 투표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보원천에 대한 변수를 종속변수라 정의 하였다.

(2) 후보자의 선택요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은 후보자의 소속정당, 학력, 정치경력, 유권자와의 동일 지역출신, 공약, 도덕성, 혈연, 인물, 인지도 등 사회적 속성과 이미지형성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보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속성은 유권자가 투표행동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후보자의 대표적인 요인인 정치경력, 도덕성, 인지도, 인물(업무의 수행능력) 등의 후보자의 이미지를 형성 하는 요소들과 유권자와 후보자의 지역 출신이 동일한 경우, 소속정당, 학력, 혈연, 공약 등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요소들을 종속변수로 정의하였다.

2) 독립변수

(1)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이념성향(진보, 보수, 중도)

진보적인 이념은 경제성장보다 분배, 복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지만, 보수적인 이념은 경제성장을 중요시 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한다. 중도적 이념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진보, 보수로 움직일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대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보수정당 및 보수성향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는 진보정당 및 진보성향을 가진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권자의 이념성향 즉, 진보, 보수, 중도성향이 후보자의 선택하는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이를 독립변수로 정의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에 있어서의 종속변수를 유권자의 정보원천(친구·이

웃, 가족,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정당홍보물)과 후보자의 선택요인(소속 정당, 학력, 정치경력, 나와 같은 지역출신, 공약, 도덕성, 혈연, 인물, 인지도)을 종속변수라 정의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후보자의 선택행동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진보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을 정의 하였다.



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표본의 구성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1> 자료의 구성

구 분		빈도 (n=281)	백분비 (%)	유효백분비 (%)	누적백분비 (%)
연 령	20대	44	15.7	15.7	15.7
	30대	99	35.2	35.2	50.9
	40대	94	33.5	33.5	84.3
	50대	41	14.6	14.6	98.9
	60대 이상	3	1.1	1.1	100.0
성 별	남성	155	55.2	55.2	55.2
	여성	126	44.8	44.8	100.0
종 교	기독교	45	16.0	16.0	16.0
	천주교	43	15.3	15.3	31.3
	불교	76	27.0	27.0	58.4
	종교 없음	115	40.9	40.9	99.3
	기타	2	0.7	0.7	100.0
최종학력	고졸이하	79	28.1	28.1	28.1
	전문대졸	91	32.4	32.4	60.5
	대졸이상	111	39.5	39.5	100.0
직 업	자영업	34	12.1	12.1	12.1
	전업주부	11	3.9	3.9	16.0
	급여생활자	212	75.5	75.5	91.5
	기타	24	8.5	8.5	100.0
월평균 소득	100만미만	21	7.5	7.5	7.5
	100-200만미만	115	40.9	40.9	48.4
	200-300만미만	90	32.0	32.0	80.4
	300-400만원미만	35	12.5	12.5	92.9
	400만원이상	20	7.1	7.1	100.0
출생 지역	제주시	158	56.2	56.2	56.2
	서귀포시	88	31.3	31.3	87.5
	기타	35	12.5	12.5	100.0
결혼 여부	기혼	196	69.8	69.8	69.8
	미혼	85	30.2	30.2	100.0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응답자가 전체응답자의 55.2%로 여성응답자 44.8%보다 많았고, 이들의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50.9%이고, 40대, 50대, 60대 순

으로 구성되었다. 종교에 따른 구성비를 보면, 불교인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7.0%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천주교순으로 구성되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이상이 전체의 71.9%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고학력자이고, 직업별로는 급여생활자가 75.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40.9%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제주시가 56.2%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69.8%로 미혼자보다 많게 구성 되었다.

제 2 절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에서 주요 분석도구로 이용된 개념에 대하여 신뢰도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을 하였다.

신뢰성은 어떤 개념을 어떻게 측정하였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개념으로써, 측정자가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그 정도를 파악한다. 이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는데, 일반적으로 크론바하의 α 계수가 0.6 이상이 되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초기연구단계의 경우 0.5 이상이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unnally, 1976).

한편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정확성에 관한 것으로써,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측정도구가 실제로 측정하는 개념과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일치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타당성 검증의 적정성을 보기 위해 변수 간 부분상관계수 값이 작은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표본추출 적합검증 척도인 KMO의 값이 제시되었다.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구분과 일치하여 요인적재량이 요인별로 확실하게 구분되었고, 공통성도 모두 0.4이상인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표 4-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 인 명	요인 구성 변수	요인 적재량					공통성
		1	2	3	4	5	
자아 주도형 ($\alpha=.670$)	새로운 모험을 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u>.775</u>	.157	.028	.052	-.048	.630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문화는 계속 지켜 나가야한다	<u>.653</u>	.174	-.045	-.051	.255	.526
	외국의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하다	<u>.591</u>	.381	-.056	.143	-.094	.527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자주 접 한다	<u>.512</u>	.101	.269	.159	-.234	.425
자아 여가 형 ($\alpha=.581$)	나는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097	<u>.759</u>	.180	.098	.130	.644
	돈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며, 돈에 관심을 갖는 일은 나쁘지 않다	.270	<u>.643</u>	.000	.101	.007	.497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148	<u>.580</u>	.098	.134	-.144	.406
	즐겁게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목표이다	.492	<u>.497</u>	-.030	.075	-.056	.499
3.진보 탐색 형 ($\alpha=.602$)	정치토론 TV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편이다	-.085	.112	<u>.714</u>	.062	-.044	.535
	나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정치관련 기사를 자세히 읽는 편이다	.169	.017	<u>.702</u>	.056	.224	.575
	인터넷 검색 시 몇 글 다는 것이 재미있다	-.070	.138	<u>.686</u>	.057	-.013	.498
	나는 규칙 따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편이다	.363	-.333	<u>.500</u>	.173	-.137	.541
건강 추구 형 ($\alpha=.586$)	비싸더라도 유기농, 친환경 식품을 사먹는다	-.188	.106	.165	<u>.775</u>	.039	.676
	인스턴트식품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 한다	.325	.064	-.089	<u>.712</u>	-.004	.624
	체중이나 몸매에 항상 신경 쓰고 있다	.146	.206	.194	<u>.637</u>	.128	.523
5 보수 지향 형 ($\alpha=.630$)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 한다	.090	-.027	-.012	.085	<u>.837</u>	.717
	나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을 좋아 하는 편이다	-.149	-.012	.084	.051	<u>.803</u>	.678
Eigenvalues		3.622	1.982	1.585	1.214	1.118	-
Variance(%)		21.307	11.661	9.322	7.138	6.576	Total=56.005
KMO and Bartlett's Test		KMO=0.731 $\chi^2=935.457$ (df=136, Sig=0.000)					

요인 1은 4개 문항으로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흥미를 보이며,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는 내용들로 ‘자아 주도 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4개 문항으로 여가시간을 보다 선호하며, 인생의 목표를 즐겁게 사는 것을 내용들로 ‘자아 여가 형’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4개 문항으로 정치토론 프로를 좋아하고, 인터넷 검색 시 댓 글 다는 것이 재미있으며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편으로 ‘진보 탐색 형’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3개의 문항으로 유기농, 친환경식품이 비싸더라도 사먹으며, 인스턴트식품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며 체중이나 몸매에 항상 신경 쓰는 내용들로 ‘자기 관리 추구 형’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며,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 ‘보수 지향 형’이라 명명 하였다.

이상은 라이프스타일 측정항목들에 대한 응답들을 가지고 유사한 성격의 요인들로 묶어 분류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성 값이 모두 0.4 이상을 보이고 있고, 크론바하 알파 값이 0.5 이상을 보이고 있어서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체변수에 대한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주는 KMO통계량이 0.731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하게 나타났고, 요인분석에서의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지를 파악하는 Bartlett의 검정에서 카이(χ)값 ($p=0.000$)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라이프스타일의 변수들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가설 검증 결과

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군집 분석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측정항목들에 대한 주요인들을 바탕으로 전체 응답자를 의미 있는 몇 개의 군집으로 묶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표 4-4>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군집의 수는 군집들의 크기가 시장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크고 고루 분산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 군집들 간의 유사성 및 중복성이 극소화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해 볼 때, 분석에 적정한 군집수를 진보집단, 보수집단, 중도집단 등 3개로 확정하였다.

1) 군집1 : 진보집단

이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새로운 모험을 해보는 것에 매우 흥미를 느끼며, 외국의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필요로 하며, 일생 생활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정치토론 TV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편이다. 또한 인터넷 검색 시 댓글 다는 것이 재미있어 하는 유형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를 추구 하여 ‘진보집단’이라 명명 하였다. 총 84명으로 약 30%의 분포를 보였으며 집단의 특성으로는 30~40대와 고소득층, 사무, 전문직, 고학력, 기혼인 특성을 보여 주었다.

2) 군집2 : 보수집단

이 집단은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는 유형으로 변화 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수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총 122명으로 43.3%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집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특성으로는 40~50대층, 중산층, 농업종사자, 가정주부, 저학력, 특성이 나타났다.

3) 군집3 : 중도집단

마지막으로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비싸더라도 유기농·친환경식품을 사먹으며 체중이나 몸매에 항상 신경 쓰고 인스턴트식품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높아 중도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총 75명으로 26.7%의 분포를 보였고 집단의 특성으로는 특이하게 젊은 층에 응답자가 많았는

데 20~30대가 여기에 속했으며, 여성이 많았고 종교가 없었으며 저소득층이며 미혼자였다.

<표 4-3> 군집분석 결과

구 분	군 집		
	진보 집단 (n=84)	보수 집단 (n=122)	중도 집단 (n=75)
요인1: 자아 주도 형	.58929	-.60684	.32712
요인2: 자아 여가 형	.54802	.30168	-1.10451
요인3: 진보 탐색 형	.77942	-.45390	-.13460
요인4: 자기 관리추구 형	.14923	-.23148	.20940
요인5: 보수 지향 형	-.25653	.15768	.03082
집단 간 특성	30, 40대 고소득층 사무, 전문직 고학력 기혼	40, 50대 중산층 농업, 가정주부 저학력 제주시 기혼	20, 30대 여성 무종교 저소득층 전문대졸 제주시 미혼

라이프스타일 항목을 이용하여 분류한 세부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ross-tabulation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가설 검증

일반적으로 90% 신뢰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카이제곱(Chi-Square) p-값(p-value)이 0.1보다 크면 귀무가설(H_0)을 채택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p-value가 0.1보다 작으면 대립가설(H_1)을 채택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기수준을 기준으로 각각의 가설에 대한 검정을 하기위하여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1) [가설 1]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진보, 보수, 중도)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가설 1-1 : 연령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4> 연령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구 분		군 집			전 체
		진보집단	보수 집단	중도 집단	
20대	빈도	10	22	12	44
	비율(%)	22.7	50.0	27.3	100.0
30대	빈도	34	34	31	99
	비율(%)	40.5	27.9	41.3	35.2
40대	빈도	31	42	21	94
	비율(%)	33.0	44.7	22.3	100.0
50대	빈도	9	21	11	41
	비율(%)	10.7	17.2	14.7	14.6
60대 이상	빈도	0	3	0	3
	비율(%)	0.0	2.5	0.0%	1.1
전체	빈도	84	122	75	281
	비율(%)	29.9	43.4	26.7	100.0
통계치		100.0	100.0	100.0	100.0
		$\chi^2=10.877$ (p=0.209)			

*p<0.1, **p<0.05, ***p<0.01

연령과 라이프스타일유형은 유의수준 $\alpha=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어릴수록 진보적 성향을 보였으며, 30대에서 60대로 갈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2) 가설 1-2 : 성별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별과 라이프스타일유형은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의 진보집단은

32.3%, 보수집단은 43.2%, 중도 집단은 24.5%를 나타낸 반면 여성은 진보가 27.0%, 보수 43.7%, 중도 29.3%를 보여 남성이 여성보다 진보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성별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구 분		군 집			전 체
		진보 집단	보수 집단	중도 집단	
남자	빈도	50	67	38	155
	비율(%)	32.3	43.2	24.5	100.0
여자	빈도	34	55	37	126
	비율(%)	27.0	43.7	29.3	100.0
전체	빈도	84	122	75	281
	비율(%)	29.9	43.4	26.7	100.0
통계치		100.0	100.0	100.0	100.0%
		$\chi^2=1.262$ (p=0.532)			

*p<0.1, **p<0.05, ***p<0.01

(3) 가설 1-3 : 소득수준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소득수준과 라이프스타일유형은 $\alpha=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소득으로 갈수록 진보 집단의 성향을 보이고 저소득으로 갈수록 중도적 집단의 성향을 보여 한국인은 대체로 고소득일수록 진보성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진영재, 김민욱, 2007)와 유사함을 나타내었다.

<표 4-6> 소득수준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구 분		군 집			전 체
		진보 집단	보수 집단	중도 집단	
100만원 미만	빈도	4	9	8	21
	비율(%)	19.0	42.9	38.1	100.0
100~200만원 미만	빈도	4.8	7.4	10.7	7.5
	비율(%)	30.4	39.2	30.4	100.0
200~300만원	빈도	41.7	36.9	46.7	41.0
	비율(%)	23	44	23	90

미만	비율(%)	25.6	48.8	25.6	100.0
		27.4	36.1	30.7	32.0
300~400만원	빈도	15	16	4	35
미만	비율(%)	42.9	45.7	11.4	100.0
		17.9	13.1	5.3	12.5
400~500만원	빈도	0	6	1	7
미만	비율(%)	0.0	85.7	14.3	100.0
		0.0	4.9	1.3	2.5
500~600만원	빈도	3	2	1	6
미만	비율(%)	50.0	33.3	16.7	100.0
		3.5	1.6	1.3	2.1
600~700만원	빈도	1	0	2	3
미만	비율(%)	33.3	0.0	66.7	100.0
		1.1	0.0	2.7	1.0
700만원	빈도	3	0	1	4
이상	비율(%)	75.0	0.0	25.0	100.0
		3.6	0.0	1.3	1.4
전체	빈도	84	122	75	281
		29.9	43.4	26.7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치		$\chi^2=23.381$ (p=0.054*)			

*p<0.1, **p<0.05, ***p<0.01

(4) 가설1-4 : 학력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학력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alpha=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보집단의 대졸은 37.3%, 대학원이상은 38.1%로 나타났으며 보수집단에서는 대졸이 40.0%, 대학원이상은 42.9%를 보였다. 또한 중도 집단에서는 대졸 22.7%, 대학원이상 19.0%를 보여 고학력일수록 보수집단이 높았다.

<표 4-7> 학력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구 분		군 집			전 체
		진보 집단	보수 집단	중도 집단	
고졸 이하	빈도	21	38	20	79
	비율(%)	26.6	48.1	25.3	100.0
		25.0	31.1	26.7	28.1
전문대 졸	빈도	23	38	30	91
	비율(%)	25.3	41.8	32.9	100.0
		27.4	31.1	40.0	32.4
대학 재학	빈도	4	7	4	15
	비율(%)	26.7	46.6	26.7	100.0
		4.8	5.8	5.3	5.3
대학 졸	빈도	28	30	17	75
	비율(%)	37.3	40.0	22.7	100.0
		33.3	24.6	22.7	26.7
대학원 이상	빈도	8	9	4	21
	비율(%)	38.1	42.9	19.0	100.0
		9.5	7.4	5.3	7.5
전체	빈도	84	122	75	281
	비율(%)	29.9	43.4	26.7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치		$\chi^2=5.863$ (p=0.663)			

*p<0.1, **p<0.05, ***p<0.01

(5) 가설 1-5 : 출생지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출생지와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alpha=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가 제주도인 경우 진보 집단이 27.9% 보수집단이 43.7%, 중도 집단이 28.4%를 보여 30.7%의 진보집단을 보인 서귀포지역 보다 진보집단이 다소 떨어지는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제주시는 보수집단(43.7%)에서 서귀포시의 보수집단(42.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8> 출생지와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구 분		군 집			전 체
		진보 집단	보수 집단	중도 집단	
제주시	빈도	44	69	45	158
	비율(%)	27.9	43.7	28.4	100
		52.4	56.6	60.0	56.2
서귀포시	빈도	27	37	24	88
	비율(%)	30.7	42.0	27.3	100
		32.1	30.3	32.0	31.3
서울	빈도	0	6	5	11
	비율(%)	0.0	54.6	45.4	100.0
		0.0	4.9	6.7	3.9
경기/인천	빈도	4	0	1	5
	비율(%)	80.0	0.0	20.0	100.0
		4.7	0.0	1.3	1.8
충청	빈도	2	1	0	3
	비율(%)	66.7	33.3	0.0	100.0
		2.4	0.8	0.0	1.1
영남	빈도	5	2	0	7
	비율(%)	71.4	28.6	0.0	100.0
		6.0	1.6	0.0	2.5
호남	빈도	0	5	0	5
	비율(%)	0.0	100.0	0.0	100
		0.0	4.1	0.0	1.8
강원도	빈도	2	2	0	4
	비율(%)	50.0	50.0	0.0	100.0
		2.4	1.7	0.0	1.4
전체	빈도	84	122	75	281
	비율(%)	29.9	43.4	26.7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치		$\chi^2=23.381$ (p=0.054*)			

*p<0.1, **p<0.05, ***p<0.01

(5) 가설 1-6 : 결혼여부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혼여부와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수준 $\alpha=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라 기혼인 유권자는 진보 집단이 30.6%, 보수집단은 46.4%, 중도 집단은 23.0%를 보였고 미혼은 진보집단이 28.2%, 보수집단이 36.5%를 중도 집단은 35.3%를 보여주어 기혼이 미혼보다 보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졌다.

<표 4-9> 결혼여부와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구 분		군 집			전체
		진보 집단	보수 집단	중도 집단	
기혼	빈도	60	91	45	196
	비율(%)	30.6	46.4	23.0	100.0
		71.4	74.6	60.0	69.8
미혼	빈도	24	31	30	85
	비율(%)	28.2	36.5	35.3	100.0
		28.6	25.4	40.0	30.2
전체	빈도	84	122	75	281
	비율(%)	29.9	43.4	26.7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치		$\chi^2=4.846$ (p=0.098*)			

*p<0.1, **p<0.05, ***p<0.01

2) [가설 2]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정보원천별(친구, 이웃, 가족,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정당홍보물) 신뢰정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가설 2-1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친구·이웃의 정보신뢰 정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라 친구, 이웃의 정보에 대한 신뢰정도는 $\alpha=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11>은 독립변수에 따라 친구·이웃에 대한 신뢰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도 집단의 평균치는 3.373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보수집단은 평균치 2.877로 가장 낮게 분석 되었다.

<표 4-10>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정보원천(친구·이웃)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친구·이웃의 정보신뢰정도	진보	84	3.273	0.098	8.700	.000***
	보수	122	2.877	0.083		
	중도	75	3.373	0.100		

*p<0.1, **p<0.05, ***p<0.01

(2) 가설 2-2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가족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족에 대한 정보신뢰정도는 $\alpha=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4-11>과 같이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인 진보집단 평균치는 3.310, 보수집단 평균치는 3.230을 보였고, 중도 집단의 평균치는 3.613으로 가장 높게 분석 되었다.

<표 4-11>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정보원천(가족)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가족의 정보	진보	84	3.310	0.918	3.835	.023**
	보수	122	3.230	0.986		
	중도	75	3.613	0.971		

*p<0.1, **p<0.05, ***p<0.01

(3) 가설 2-3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인쇄매체(신문, 잡지)의 정보 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2> 인쇄매체(신문, 잡지)의 정보에 대한 신뢰정도는 $\alpha=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인쇄매체에 대하여 신뢰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보수집단은 평균치가 2.959로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진보집단이 선거에 있어서 인쇄매체에 대한 정보를 더욱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2>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정보원천(인쇄매체 : 신문, 잡지)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쇄매체(신문, 잡지) 정보	진보	84	3.429	0.840	8.504	.000***
	보수	122	2.959	0.847		
	중도	75	3.040	0.779		

*p<0.1, **p<0.05, ***p<0.01

(4) 가설 2-4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방송 매체(TV,라디오)의 정보 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3>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방송매체(TV, 라디오)의 정보에 대한 신뢰정도는 $\alpha=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진보·보수·중도 집단 모두가 방송매체에 대하여 신뢰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각 군집간의 유권자 모두가 방송매체인 TV, 라디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13>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정보원천(방송매체 : TV, 라디오)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방송매체(TV, 라디오) 정보	진보	84	3.441	0.896	4.003	.019**
	보수	122	3.090	0.899		
	중도	75	3.187	0.833		

*p<0.1, **p<0.05, ***p<0.01

(5) 가설 2-5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인터넷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4>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인터넷정보에 대한 신뢰정도는 $\alpha=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집단이 보수와 중도 집단 보다 신뢰정도가 높게 분석 되었으며 보수집단은 인터넷에 대한 선거정보 신뢰에서 평균치가 2.9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유권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대한 정보보다는 가족이나, 방송매체를 더 신뢰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4-14>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정보원천(인터넷)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터넷 정보	진보	84	3.536	0.975	10.244	.000***
	보수	122	2.951	0.899		
	중도	75	3.133	0.875		

* $p < 0.1$, ** $p < 0.05$, *** $p < 0.01$

(6) 가설 2-6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정당 홍보물의 정보신뢰 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5>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정당 홍보물에 대한 신뢰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진보집단의 평균치가 2.679를 보였고 보수집단의 평균치는 2.467로 나타났으며 중도 집단은 2.613으로 분석 되었다.

<표 4-15>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정보원천(정당 홍보물)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정당홍보물 정보	진보	84	2.679	1.110	1.225	.295
	보수	122	2.467	0.964		
	중도	75	2.613	0.899		

* $p < 0.1$, ** $p < 0.05$, *** $p < 0.01$

3) [가설 3]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 후보자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평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가설 3-1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 후보자 선택 시 소속정당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 결과 <표 4-16>에서와 같이 소속정당은 $\alpha=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보집단평균치는 3.488을 보였고, 중도 집단평균치는 3.360을 보였다. 보수집단의 평균치는 2.98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6> 도지사후보의 소속정당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소속정당	진보	84	3.488	1.187	5.503	.005**
	보수	122	2.983	1.135		
	중도	75	3.360	1.086		

* $p<0.1$, ** $p<0.05$, *** $p<0.01$

(2) 가설 3-2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 후보자 선택 시 학력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 결과 <표 4-17>에서와 같이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 후보의 학력에 대한 고려는 $\alpha=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진보집단은 평균치가 3.2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 집단평균치는 3.200을 보였으며 보수집단평균치는 <표 4-16>에서와 같이 가장 낮게 분석 되었다.

<표 4-17> 도지사후보의 학력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학력	진보	84	3.250	1.107	2.691	.070*
	보수	122	2.942	.973		
	중도	75	3.200	1.013		

*p<0.1, **p<0.05, ***p<0.01

(3) 가설 3-3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정치 경력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 결과 <표 4-18>과 같이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정치경력에 대한 고려는 $\alpha=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보집단의 평균치는 3.84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보수집단평균치는 3.336으로 가장 낮게 분석 되었다.

<표 4-18> 도지사후보의 정치경력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정치 경력	진보	84	3.845	.999	7.673	.001***
	보수	122	3.336	.941		
	중도	75	3.400	.929		

*p<0.1, **p<0.05, ***p<0.01

(4) 가설 3-4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나와 같은 지역출신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 결과 <표 4-19>에서와 같이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나와 같은 지역 출신을 고려하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집단 간 평균치도 다른 항목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 분석되었다.

<표 4-19> 도지사후보의 나와 같은 지역 출신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나와 같은 지역출신	진보	84	2.690	1.086	.782	.458
	보수	122	2.729	1.083		
	중도	75	2.893	1.097		

*p<0.1, **p<0.05, ***p<0.01

(5) 가설 3-5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공약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0> 도지사후보의 공약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공약	진보	84	4.381	.758	10.444	.000***
	보수	122	3.754	1.108		
	중도	75	4.026	.929		

*p<0.1, **p<0.05, ***p<0.01

<표 4-20> 공약은 통계적 유의수준 $\alpha=0.01$ 에서 유의하게 분석 되었다. 특히 진보 집단의 평균치가 4.38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도지사선거에서의 공약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6) 가설 3-6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도덕성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 결과 <표 4-21>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도지사후보의 도덕성은 $\alpha=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특히 진보 집단의 평균치는 4.583이었으며, 보수집단도 4.303, 중도 집단도 4.360으로 다른 요인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4-21> 도지사후보의 도덕성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도덕성	진보	84	4.583	.7478	2.586	.077*
	보수	122	4.303	.96114		
	중도	75	4.360	.9100		

*p<0.1, **p<0.05, ***p<0.01

(7) 가설 3-7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혈연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2> 도지사후보의 혈연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혈연	진보	84	2.666	1.033	.022	.978
	보수	122	2.696	1.051		
	중도	75	2.693	1.102		

*p<0.1, **p<0.05, ***p<0.01

가설검증 결과 <표 4-22>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지사선택 시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과 혈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혈연은 고려하는 정도가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8) 가설 3-8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인물(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검증 결과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인물(업무수행능력)은 $\alpha=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의 고려정도가 진보집단평균치 4.476, 보수집단평균치 4.098, 중도 집단은 평균치 4.000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도지사 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요인으로 인물(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4-23> 도지사후보의 인물(업무수행능력)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물 (업무수행능력)	진보	84	4.476	.813	6.047	.003***
	보수	122	4.098	1.015		
	중도	75	4.000	.929		

*p<0.1, **p<0.05, ***p<0.01

(9) 가설 3-9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자 선택 시 인지도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4> 도지사후보의 인지도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지도	진보	84	3.738	.970	1.089	.338
	보수	122	3.549	1.068		
	중도	75	3.533	.977		

*p<0.1, **p<0.05, ***p<0.01

가설검증 결과 <표 4-24>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도지사후보의 인지도 고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집단의 평균치가 3.738로 가장 높았으며, 보수집단이 3.549, 중도집단의 평균치는 3.533이었다.

4) [가설 4]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의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평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가설 4-1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소속 정당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5>의 소속정당은 $\alpha=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보집단의 평균치는 3.416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 집단은 평균치 3.186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보수집단은 평균치가 2.844를 보여 가장 낮게 나타내었다. 이것은 <표 4-16>과도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표 4-25> 도의원후보의 소속정당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소속정당	진보	84	3.416	1.163	6.549	.002***
	보수	122	2.844	1.178		
	중도	75	3.186	1.035		

*p<0.1, **p<0.05, ***p<0.01

(2) 가설 4-2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학력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6>의 학력은 $\alpha=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보집단평균치는 3.214로 가장 높았고, 보수집단평균치는 2.8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도 집단평균치는 3.146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것은 도지사 선거와 같이 진보와 중도 집단이 도의원 선거에서 학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보수 집단은 두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4-26> 도의원후보의 학력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학력	진보	84	3.214	1.053	3.186	.043**
	보수	122	2.877	.091		
	중도	75	3.146	.114		

*p<0.1, **p<0.05, ***p<0.01

(3) 가설 4-3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정치 경력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경력은 $\alpha=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 되었다. 독립 변수인 진보, 보수, 중도 집단이 정치경력에 있어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표 4-18>에서처럼 제주지역의 유권자가 도지사 선거와 동일하게 도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진보, 보수, 중도 집단 모두가 정치경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였다.

<표 4-27> 도의원후보의 정치경력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정치 경력	진보	84	3.690	1.086	6.139	.002***
	보수	122	3.213	1.085		
	중도	75	3.200	.972		

*p<0.1, **p<0.05, ***p<0.01

(4) 가설 4-4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나와 같은 지역출신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8> 도의원후보의 나와 같은 지역 출신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나와 같은 지역출신	진보	84	2.940	1.101	.893	.411
	보수	122	2.729	1.135		
	중도	75	2.800	1.102		

*p<0.1, **p<0.05, ***p<0.01

<표 4-28>에서 보는바와 같이 나와 같은 지역 출신은 $\alpha=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가설 3-4>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진보, 보수, 중도 집단 모두가 군집 간에 유의하지 않게 분석 되었다.

(5) 가설 4-5: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공약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9>의 공약은 $\alpha=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지사선거에 있어서의 <표 3-5>와 유사하게 진보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치인 4.285를 보였으며 중도 집단이 3.973을 보여 다음으로 높았고, 보수집단이 3.680을 보였다.

<표 4-29> 도의원후보의 공약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공약	진보	84	4.285	.844	9.390	.000***
	보수	122	3.680	1.122		
	중도	75	3.973	.900		

*p<0.1, **p<0.05, ***p<0.01

(6) 가설 4-6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도덕성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30> 도의원후보의 도덕성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도덕성	진보	84	4.511	.828	2.891	.057*
	보수	122	4.180	1.142		
	중도	75	4.253	.886		

*p<0.1, **p<0.05, ***p<0.01

<표 4-30>의 도덕성은 $\alpha=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 되었다. 진보집단평균치가 4.5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중도 집단평균치로 4.253을 보였고 보수집단평균치는 4.180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주지역의 유권자들은 도의원 선거 에서도 도지사 선거와 동일하게 도덕성에 대해 매우 크게 유의 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7) 가설 4-7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혈연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혈연은 $\alpha=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보수, 중도 집단이 종속변수인 혈연에 대하여 후보자선택요인으로 유의하지 않게 분석 되었다.

<표 4-31> 도의원후보의 혈연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혈연	진보	84	2.726	1.090	.021	.979
	보수	122	2.696	1.105		
	중도	75	2.720	1.097		

*p<0.1, **p<0.05, ***p<0.01

(8) 가설 4-8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인물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32>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물(업무수행능력)은 통계적 유의수준 $\alpha=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보집단이 평균치가 4.261값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수집단, 중도 집단 순으로 분석 되었다.

<표 4-32> 도의원후보의 인물(업무수행능력)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물 (업무수행능력)	진보	84	4.261	.983	2.593	.077*
	보수	122	4.016	1.067		
	중도	75	3.906	.988		

*p<0.1, **p<0.05, ***p<0.01

(9) 가설 4-9 :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자 선택 시 인지도에 대한 고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33> 도의원후보의 인지도

변 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유의 확률
종속변수	독립변수					
인지도	진보	84	3.601	1.064	.810	.446
	보수	122	3.418	1.082		
	중도	75	3.506	.977		

*p<0.1, **p<0.05, ***p<0.01

<표 4-33>에서처럼 인지도는 <가설 3-9>와 동일하게 $\alpha=0.1$ 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게 분석 되었다. 종속변수인 인지도에 대해서 진보집단 평균치가 3.601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도는 기각되었다.

제 4 절 분석결과의 요약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가설 1>인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교차분석에서는 연령, 성별, 학력은 통계치 유의수준(* $p < 0.1$)에서 벗어나 기각되었으며, 소득수준, 출생지, 결혼여부는 통계치 유의수준(* $p < 0.1$)에 유의하여 모두 채택되었다. 또한 <가설 2>인 정보원천에 대한 신뢰정도에서는 정당홍보물을 제외한 친구·이웃, 가족,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에서 유의수준(* $p < 0.1$, ** $p < 0.05$, *** $p < 0.01$)에 유의하여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 3>과 <가설 4>인 도지사·도의원 후보 선택요인평가에서는 나와 같은 지역 출신, 혈연, 인지도가 유의수준(* $p < 0.1$, ** $p < 0.05$, *** $p < 0.01$)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속정당, 학력, 정치경력, 공약, 도덕성, 인물(업무수행능력)은 유의수준에 모두적합하게 나타나 모두 채택되었다. 이상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여 각 표로 나타내었다.

<표 4-3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표

구 분	가 설	χ^2	p-value	결 과
H ₁	H ₁₋₁ 연령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0.877	0.209*	기각
	H ₁₋₂ 성별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62	0.532*	기각
	H ₁₋₃ 소득수준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381	0.054*	채택
	H ₁₋₄ 학력수준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5.863	0.663*	기각
	H ₁₋₅ 출생지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381	0.054*	채택
	H ₁₋₆ 결혼여부에 따라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4.846	0.098*	채택

*p<0.1, **p<0.05, ***p<0.01

<표4-35> 정보원천별 신뢰정도

구 분	가 설	F값	p-value	결 과
H ₂	H ₂₋₁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라 친구·이웃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8.700	0.000***	채택
	H ₂₋₂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가족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3.835	0.023**	채택
	H ₂₋₃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인쇄매체(신문, 잡지)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8.504	0.000***	채택
	H ₂₋₄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방송매체(TV,라디오)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4.003	0.019**	채택
	H ₂₋₅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인터넷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0.244	0.000***	채택
	H ₂₋₆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정당홍보물의 정보신뢰정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25	0.295*	기각

*p<0.1, **p<0.05, ***p<0.01

<표 4-36> 도지사후보의 선택요인평가

구 분	가 설	F값	p-value	결 과	
H ₃	H ₃₋₁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소속정당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5.503	0.005***	채택
	H ₃₋₂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학력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2.691	0.070*	채택
	H ₃₋₃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정치경력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7.673	0.001***	채택
	H ₃₋₄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나와 같은 지역출신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0.782	0.458*	기각
	H ₃₋₅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공약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0.444	0.000***	채택
	H ₃₋₆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도덕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86	0.077*	채택
	H ₃₋₇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혈연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0.022	0.978*	기각
	H ₃₋₈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인물(업무수행능력)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6.47	0.003***	채택
	H ₃₋₉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인지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089	0.338*	기각

*p<0.1, **p<0.05, ***p<0.01

<표 4-37> 도의원후보의 선택요인평가

구 분	가 설	F값	p-value	결 과	
H ₄	H ₄₋₁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소속정당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6.549	0.002***	채택
	H ₄₋₂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학력은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86	0.043**	채택
	H ₄₋₃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정치경력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6.139	0.002***	채택
	H ₄₋₄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나와 같은 지역출신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0.893	0.411*	기각
	H ₄₋₅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공약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9.390	0.000***	채택
	H ₄₋₆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도덕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2.891	0.057*	채택
	H ₄₋₇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혈연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0.021	0.979*	기각
	H ₄₋₈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인물(업무수행능력)의 중요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93	0.077*	채택
	H ₄₋₉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인지도 중요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0.810	0.446*	기각

*p<0.1, **p<0.05, ***p<0.01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약과 시사점

라이프스타일 개념은 개인으로부터 사회전체에 걸쳐 언급될 수 있으며 분석의 목적과 관심의 차이에 따라서 개인, 가족, 혹은 세대, 집단, 계층, 지역, 사회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라이프스타일을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태도, 가치의식, 의견, 흥미 및 실제적 행동과 상호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라이프스타일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에 따라 다른 개념을 내포하며 사용되어 왔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통합기능이라는 공통된 시각도 있으며, 독자성, 창조성, 가치관, 목표지향성을 내포하며, 각각의 기호와 신호, 그것에 상응하는 선택을 통한 능동적, 주체적인 생활을 형성하려는 인간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떤 문화나 집단과 식별 할 수 있는 생활상이 구성요소나 특징과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구매의 양식은 바로 어떤 사회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통합할 때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각 사회계층의 라이프스타일, 생활주기 단계상의 각 특정집단의 라이프스타일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은 태도, 가치의식, 견해, 흥미와 실제적 행동과 상호 통합된 하나의 체계이자 인간행동 전반에 나타나는 상징적이고 차별적인 행동양식으로 환경적 및 개인적 용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파생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는가(활동), 환경 속에서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가(관심),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의견) 등의 세 가지 요소로 식별할 수 있는 생활양식(mode of living)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은 라이프스타일 분석이 전체적인 사회의 생활양식을 밝혀 준다는 것이며, 유용성은 시장을 세분하는 데 있다. 라이프스타일에는 연령, 소득, 직업 등과 같이 고정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연구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각기 달리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는 구별된다.

투표행태 연구의 필요성은 선거의 후보자 또는 정당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권력을 획득하기 때문에 선거 시 제시한 정책공약을 지킬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구성된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집행기관과 국회 및 지방의회 등 의결기관은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정책화 하고 이를 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거는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의 기회이며,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선거공약화 함으로써, 정책 산실의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정책공약은 유권자의 심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수준에 정책의 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권자의 심판 즉, 투표행태가 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투표행태의 연구는 바람직한 후보자 선택의 역량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목적은 매우 다양하지만 하나의 목적은 연구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통해서 사회의 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이를 인간이 통제하고 조정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 투표를 했으며 그 요인이 어느 정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선택 요인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자들의 논의를 배경으로 한 본 연구는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후보자선택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위해 먼저, 연구모형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를 통해 자료 분석 및 가설 검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요인 분석하여 요인점수를 이용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보집단, 보수집단, 중도 집단의 3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제주지역 유권자 라이프스타일의 진보집단 특성은 3~40대이고, 고소득층이며, 사무, 전문직으로 고학력이며, 기혼자로 구분 되었고, 보수집단은 4~50대로 중산층이며, 농업에 종사하고 가정주부가 많으며 저학력이면서 기혼자인 것으로 구분되어졌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제주시를 출생지로 하는 자가 많았다. 중도

집단의 특성으로는 예상과는 달리 20-30대가 많았으며, 여성, 종교가 없는 무교, 저소득층, 전문대졸, 제주시, 미혼으로 구분 되어지는 특성을 보였다.

둘째, [가설 1]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진보, 보수, 중도)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검정에서 소득수준, 출생지, 결혼 여부 항목에 관하여는 카이제곱의 p-value가 0.1 미만으로 나타나 유의적으로 분석되었지만, 연령, 성별, 학력에 대하여는 유의하지 못하여 군집별로는 소득수준, 출생지, 결혼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 2]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정보원천별(친구, 이웃, 가족,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정당홍보물) 신뢰정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검정에는 친구, 이웃, 인쇄매체(신문, 잡지), 방송매체(TV, 라디오), 인터넷항목에 관하여는 카이제곱(Chi-Square)의 p-value가 0.1 미만으로 나타나 유의적으로 분석 되었지만, 가족, 정당홍보물에 대하여는 유의 하지 못하여 군집별로 친구·이웃, 인쇄매체(신문, 잡지), 방송매체(TV,라디오), 인터넷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설 3]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지사후보의 선택 요인 평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분석에는 나와 같은 지역 출신, 혈연, 인지도 면에서는 군집 간에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가설4]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도의원후보의 선택 요인 평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분석에도 [가설 3] 과 동일한 결과로서 나와 같은 지역 출신, 혈연, 인지도 면에서 군집 간에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실증분석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에서 소득수준, 출생지, 결혼여부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소득일수록 진보 성향을 보인다는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후보자정보원천에 있어서 인터넷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향후 선거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 할 수 있는 큰 요인으로 보여 지며 선거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추론 할 수 있다.

셋째, [가설 3] 과 [가설4] 에서 ‘나와 같은 지역 출신’ ‘혈연’ ‘인지도’ 요인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후보자선택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섬지역이라는 제주지역의 권 당(친인척) 문화의 특수성을 감안 해 볼 때 매우 의외적인 결과를 보인 것으로서 지금껏 제주지역의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요시했던 것과 대조를 보였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미래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실증연구 범위를 제주지역으로 국한하였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므로 제주가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할 때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유효연령에 있어서는 30-40대가 68.7%를 차지하여 유권자 전체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므로 유효연령대를 확대 하여 고른 연령대가 분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이루어질 미래연구방향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지방선거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하여도 유권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후보자 선택요인에 관련한 많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 해본다.

마지막으로 육지부와 떨어져있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내재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탐색적 연구를 통해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후보자 선택행동을 살펴본 것은 본 연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국 내>

- 강애양(2006),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관광 정보 탐색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원택(1998),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과 투표행동,” 이남영(편). **한국의 선거 II**: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 고영욱(1993), “우리나라의 정치마케팅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47.
- 권혁남(1989), “매스미디어가 유권자의 정치적 인지에 미치는 효과연구,” **사회과학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집,168-172.
- 김병국(1999), **한국의 보수주의** 인간사랑, 202
- 김욱(1999), “거주지 규모와 연령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조중빈(편) **한국의 선거 III** : 199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푸른길, 207-247.
- 김장수(2006), “정치이념과 정당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상호적 역동성”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논문집」,108-125.
- 김재환(1999), “한국의 이념 성향과 선거 정치,” 조중빈(편). **한국의 선거 III**: 199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 김현우(1993), “1980년대 한국인의 선거형태,” **한국의 선거 I**, 나남출판사.
- 김형길(1984), “라이프스타일 마케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 남승규(1995),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가치의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도형(2005), “스포츠 관광 상품 이용자 라이프스타일과 구매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찬욱(1993),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 분석”, **한국의 선거 I**, 나남출판사.
- 박철정(2005),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성격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명학(2003). “정치마케팅PR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송원근(1992), **선거공약과 이슈전략**, 한울, 22-27.

- 유진형(2005), “2005, 우리의 자화상은?,” 제일기획. 14-25.
- 이갑윤, 이현우(2002), “후보자요인이 득표에 미치는 영향 : 제14대~16대 총선을 대상으로,” (진영재판). **한국의 선거 II**,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 이명남(2004), **현대 정치 이데올로기**, 전남대학교출판부.
- 이상우(2001), “누가 左이고 누가 右인가,” 주간조선 1666호.
- 이상울 (1990), **정치마케팅-선거를 위한 마케팅 전략**. 이성과 현실, 85
- 이술이(1988), “한국국민의 투표행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8.
- 이학식 · 안광호 · 하영원(1990), **소비자행동**, 서울 : 범문사, 160.
- 이현우(1999), “동시선거제도와 유권자의 선택,” 조중빈(편), 249-286.
- 임동갑(1995), “한국 지방자치선거(1995.6.27)에서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와 성남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정연식 외(1997), **현대정치사상의 이해**, 형설, 102.
- 조재목(2005) “세대와 정치심리요인 및 투표행동 간의 인과관계 분석: 제17대 대선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강욱(200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골프용품 구매행동과 구매만족도 관계,” 우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건환 · 장휘숙 · 안권순(2005), “일반적인 가치와 성격특성이 청소년과 대학생 및 성인의 의사결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2): 95-313.
- 한국 언론연구원(1991), “지방자치와 선거제도,”
- 함성철(2007), “2007 SWITCHing Korea,” 제일기획. 14-16.
- 허경옥 외(2006), **소비자 트렌드와 시장**, 교문사.
- 황상민 · 김도환(2003),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 분석에 나타난 세대와 라이프스타일의 심리: 심리학 연구의 사회적 응용을 위한 또 다른 탐색,” **한국심리 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81-193.
- 황아란(1999), “6·4 기초단체장선거와 현직효과,” 조중빈(편), 347-394.
- 황용철(2002), **마케팅조사론**, 온누리

<국 외>

- Campbell, A., G. Gurin & Miller, 120-124.
- Anbacher, H. L. (1967). "Lifestyle: A Historical and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23, 203.
- Arthur H. Miller. (1986). "Schematic Assessments of Presidential Candid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521-540.
- Bruice I. Newman and Jagdish N. Sheth, (1984). "The Gender Gap in Voter
Attitudes and Behavior : Some Advertising Implications," Journal of
Advertising, 4-16.
- Bruice I. Newman and Jagdish N. Sheth, (1985). "A model of Primary Voter
Behavior," Journal & Consumer Research, Sep. 178-187.
- D. E. Stokes, Spatial Model of Party Competition, (1966). in A. Campbell et al,
Elections and the Political Order, N. Y. : Wiley, 105-110.
- Down,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추가
- Frisch, D. & Clemen, R. T. (1988). "Beyond expected utility: Rethinking
behavioral decision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6(1):46-54.
- G. O'keefe. Political Campaigns and Mass Communication Research, (1975) in
S. H. Chaffee (ed.), Political Communication: Issues and Strategies
for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 K. O. Key, The Responsible Electorate, Mass. (1996). Harvard Press, 59.
- Lazer, W. (1963):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 in toward scientific
marketing, ed., S. A. Greyser, Chicago. II: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30-139.
- Lewis-Beck, M.S. & Rice, T. (1992). "Forecasting Election,"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Quarterly.
- M. Sherif and C. I. Hovland, Social Judgement (1961).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in communication and Attitude Change," Yale Univ.
Press, 325-327.

- Miller, A.H., Wattenberg, M.P., & Malanchuk, O. (1984). Cognitive representation of candidate assessment, IN 34.
- Nunnally, Jun C.,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Inc., 1976.
- P. B. Natches and I. C. Bupp, Candidates, (1968). "Issues, and Boters, Public Policy," 409-437.
- R. P. Abelson, D. R. Kinder, M. d. Perters, and S. T. Fiske, (1982). "Affective and Semantic Components i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2. 619-630.
- Rokeach, M. (1973).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261-304.
- Stanley Feldman and Pamela J. Canover, (1983). "Candidates, Issues and Voters : The Role of Inference in Political Perception," Journal of Politics, vol. 45, 110-139.
- Virginia Sapiro, (1981). "If U.S. Senator Baker Were a Women: an Experimental Study of Candidate Images," Political Psychology, 61-83.
- ZuKin, Cliff & Keeter, (1983). Citizen Learning in Presidential Nomination, New York: Praeger.

<웹 사이트>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http://jj.election.go.kr>).

3. 귀하가 **선호하시는 정당**은 어떤 당입니까?

- ① 없다 ② 한나라당 ③ 민주당 ④ 민주노동당 ⑤ 자유선진당
 ⑥ 기 타 (당)

II. 3번 문항에서 귀하가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 **각 항목별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③	④	⑤
6	①	②	③	④	⑤
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③	④	⑤

III. 귀하는 **2010년도 지방선거** 시 다음 항목들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 하시겠습니까?

구분	도지사 선거					도의원 선거				
	전혀 중요치 않다	별로 중요 하지않다	보통이다	다소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전혀 중요치 않다	별로 중요 하지않다	보통이다	다소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8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9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IV. 귀하는 선거에서 **다음 항목별 유권자의 정보원천에 대하여 신뢰 정도를** 표시 하여 주십시오.

구 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20	친 구, 이웃	①	②	③	④	⑤
21	가 족	①	②	③	④	⑤
22	인쇄매체(신문,잡지)	①	②	③	④	⑤
23	방송매체(TV,라디오)	①	②	③	④	⑤
24	인터넷	①	②	③	④	⑤
25	정당홍보물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귀하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별로 동의 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문화는 계속 지켜 나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규칙 따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정치관련 기사를 자세히 읽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인터넷보다 신문이나 방송 정보가 더 믿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30	현재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나의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딸이든 아들이든 구별 없이 잘 키우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4	세상에 대한 정보를 주로 TV를 통해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사회문제에 비판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동성동본이라도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개성을 발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8	어떤 경우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39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자주 접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윗사람의 결정에 잘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42	가정에서 남편은 생계를 ,아내는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외국의 문화와 유행에 관심이 많고 개방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44	외국의 좋은 제도를 받아 들이는 것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5	새로운 모험을 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수익성이 낮아도 안정성 있는 투자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47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48	인스턴트 식품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9	체중이나 몸매에 항상 신경 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0	비싸더라도 유기농 . 친환경 식품을 사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51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자신감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52	주말이나 휴일은 주로 집 밖에서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53	돈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며, 돈에 관심을 갖는 일은 나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54	나는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5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6	결혼은 꼭 할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7	즐겁게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목표이다	①	②	③	④	⑤
58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59	직장생활보다는 개인(가정) 생활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0	나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진정서 서명,가두시위, 집회 등 에 참여 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1	인터넷 검색 시 댓글 다는 것이 재미 있다	①	②	③	④	⑤
62	정치토론 TV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3	나는 의류 구매 시 유행을 고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64	여성은 직장보다 가정에 더 충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5	나는 낙태제도를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66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주5일 근무제는 실시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7	직업을 선택할 때 급여보다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68.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69.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70.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종교 없음 ⑤ 기타()

71. 귀하의 월 가계소득 수준은?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 ~300만원 미만 ④ 300 ~ 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 ~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72. 귀하의 직업은? ① 농업 ② 사무직 ③ 전문직 ④ 자영업 ⑤ 가정주부 ⑥ 대학생

- ⑦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⑧ 영업직 ⑨ 판매서비스업 ⑩서비스업 ⑪ 기타 ()

7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학 재학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74. 출생지는? ① 제주도 ② 서귀포시 ③ 서울 ④경기/인천 ⑤ 충청 ⑥영남 ⑦호남

- ⑧강원도 ⑨ 기타()

75. 현재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장시간 진지하게 질문에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글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앞서는 저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논문을 완성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혹의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에 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움에 도전하고 싶은 열정이 오늘 본 논문의 완성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물론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金炯吉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수정 보완케 해 주신 황용철 교수님과 김정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 논문의 부족함을 채워 주기위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민철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논문의 기초부터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준 친구 양진철 소장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어려울 때마다 늘 진지하게 함께 해준 친구 이상진 선생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친구 문상욱 박사와 김택 박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도 협조를 아끼지 않은 임우진, 강인철, 고유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도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를 드리며, 더군다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명중 삼촌과 강덕민 후배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늘 옆에서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여준 하기홍 형님께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결실이 있기까지 깊은 사랑으로 지켜봐주신 부모님과 두 아이의 엄마로서 끈기와 용기를 갖을 수 있도록 깊은 사랑을 보여준 아내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엿한 중학생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사랑하는 큰딸 얼짱 지혜와 바둑, 스포츠를 무척이나 즐겨하는 멋쟁이 아들 지성이와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오빠로서 함께 있어 주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서울에 사는 여동생 현주에게도 이 기쁨을 전합니다.

2009년06월

잠든 아라 캠퍼스의 별빛을 간직 하며

김 성 철